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1월 28일(음력1월 7일) 수요일 (주간) 제458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수행하니 직장이 즐겁다"

배려·존중문화 조성…참선등 생활화
주5일근무 신행 확산시킬 것 '큰 기대'

81%

참여불교 · 本社 직장직능불자 설문조사

직장생활에 있어서 신행활동은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지장이 될까?

직장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 10명 가운데 8명이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이들 중 6명은 매일 직장에서 틈틈이 수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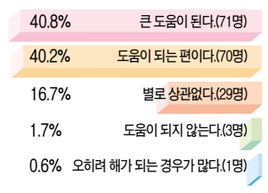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격월간)<참여불교>와 본지가 지난해 12월 전국 직장 · 직능 불자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인의 직업과 종교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불교신행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81.0%(141명)가 '그렇다'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행활동이 구성원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0%(101명)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 않다'는 2.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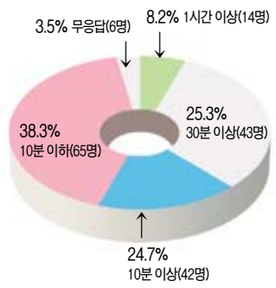
또 직장불자 대부분이 자기 수행법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7.7%(170명)가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58.2%는 하루 평균 10분 이상 수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행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30분 이상(25.3%), 10분 이상(24.7%), 1시간 이상(8.2%) 등의 순서로 파악됐으며, 10분미만은 38.3%였다. 직장생활이 바빠도, 수행만큼은 반드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수행법 유형으로는 경전읽기(간경)가 24.1%(42명)로 가장 많았고, 절하기(21.8%), 염불(19.0%), 참선(15.0%), 명상(12.5%), 위빠사나(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장 · 직능단체 불자들의 생활화 된 신행이 직장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신행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하루에 얼마나 수행하는가(170명중)?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대감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86.8%(151명)가 '기존 신행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고,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불과 10.9%(19명)였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사찰 또는 불교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높았다. 응답자의 53.5%(93명)가 주 또는 격주에 한 번 이상은 참가하겠다고 답했으며, 월1회는 31.6(55명)%, 월1회 미만은 14.9%(26명)였다.

직장불자들의 달라진 신행의식도 확인됐다. '불교계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4.4%(95명)가 불교계에 손을 들어주겠다고 답해, 회사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44.2%(77명)보다 10.2%가 높았다. 이는 직장불자들도 불교신자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들어 직장 · 직능불자회가 재가불교신행에 거사불교의 바람을 일으킨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직장불자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체 응답자의 71.8%(125명)가 현재 지도법사 또는 재적사찰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 51.2%(89명)가 직장 특성에 맞춘 신행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불교 인물에서 찾아보는 '리더십'과 '멤버십' 선호도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직장상사로서 가장 호감 가는 제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혜제일' 사리불을 꼽았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조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직장동료로서 선호하는 인물로는 원효(17.5%), 만해(8.3%), 성철(6.6%) 스님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원효 스님의 무애행이 직장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조사결과도 나왔다. '휴가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2%가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종립 초·중·고교 7곳 신설

진각종, 특수학교 포함…3년내 개교 계획

진각종이 인재양성을 위해 종립학교를 대폭 늘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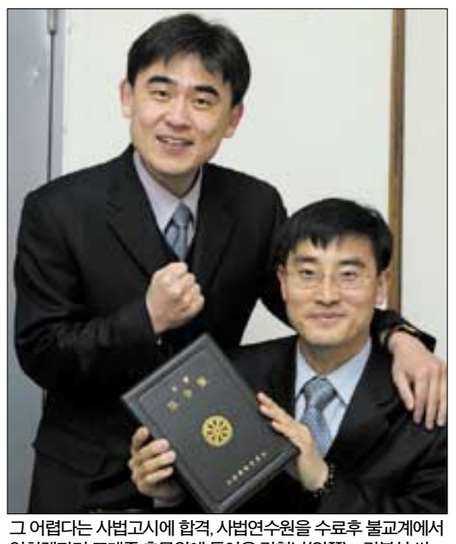
진각종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2007년까지 포항 지역에 중등학교(중 · 고교) 3곳, 위덕대 부속 초등학교 1곳, 위덕대 부설 유치원 1곳, 경주 지역에 특수학교와 대안학교 각각 1곳 등 7개 교육기관의 신설을 포함한 '회당학원을 새롭게 하는 비전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진각종 종립학교는 기존의 위덕대, 심인중 · 고, 진선여중 · 고 등을 포함해 총 12개로 늘어난다.

비전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신설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를 경주 · 포항 지역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종단과 법인, 산하학교를 연계해 인재양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시킨다.

대구 심인중 · 고, 서울 진선여중 · 고 등 4개 중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2008년까지 학교 이전을 완료하고 교육시설 첨단화, 교원자질 향상, 종조정신 구현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동 회당학원 전략경영팀장은 "2007년까지 법인운영을 관리중심에서 경영중심으로 전환하고 산하학교 확충과 시설 첨단화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인과 종단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종합교육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후 불교계에서 일하겠다며 조계종 총무원에 들어온 김형남(왼쪽) · 김봉석 씨. 사진=고영배 기자

사법연수원서 총무원으로 온 까닭은?

"신뢰받는 불교위하여"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 김봉석 변호사 '화제'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불교계 종무기관에 첫 진출한 불자 법조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사법연수원 33기 불교 모임 '다르마 법우회' 회장 김형남(39 · 법명 법화), 총무 김봉석(31 · 법명 광법) 변호사.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연수원 수료와 함께 오는 2월 1일부터 조계종 총무원 내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책임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이 조계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연수원 2년차 때. 이들은 올 초 조계종 총무원에 직접 작성한 '법률팀 사업계획안'을 들고 찾아와 근무 의사를 밝혔고, 마침 상근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감한 총무원이 이들을 받아들였다.

3면으로 계속

수석 부회장에 명우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단 구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최근 서울 일원동 비구니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수석 부회장에 명우 스님(성심사 주지 · 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등 7명의 부회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부회장단은 명우 스님을 포함해 지원(보림사), 재은(경산포교당), 자민(연대선원), 수현(안홍사), 정덕(인과선원), 도문(석남사) 스님 등이다.

한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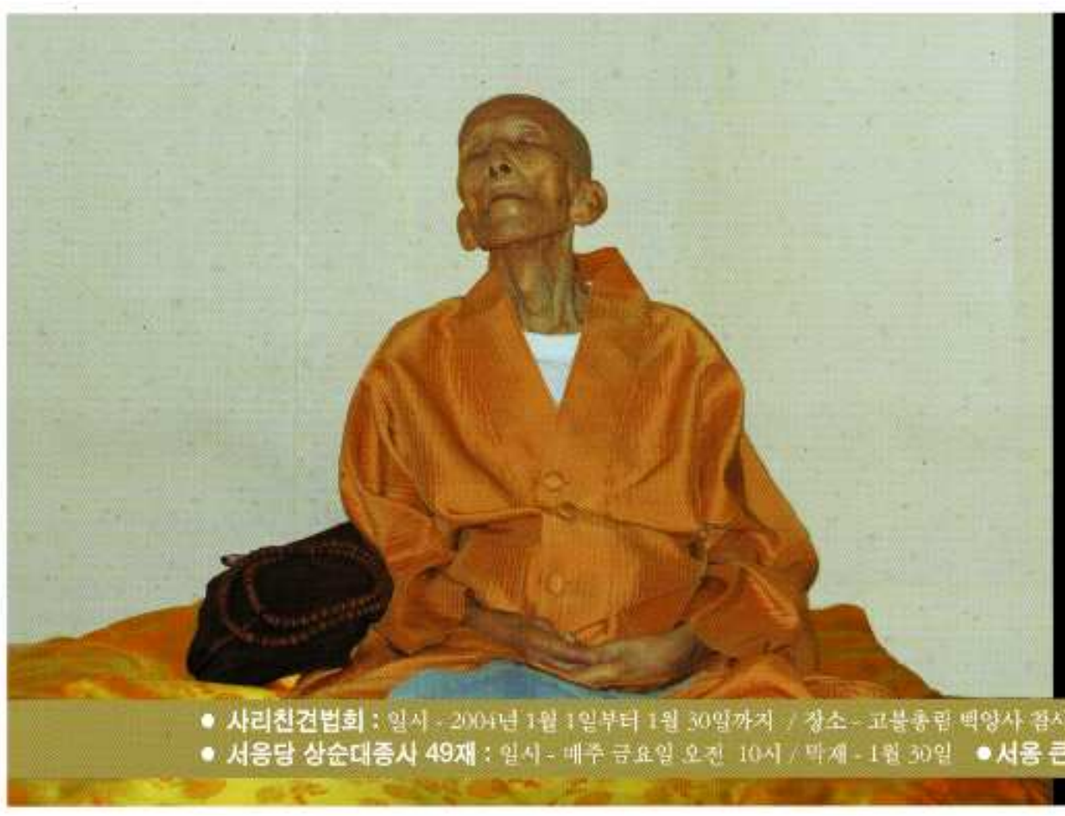
설 연휴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할'



그림 · 조태호

- 묵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



서옹대종사 사리 친견법회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참사람'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서옹 큰스님은 열반에 드실 때에도 선정에 드신 채 입적하시는 '좌탈입망'(坐脫立亡)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좌탈입망이란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서 입적을 맞이하는 좌탈과 선 채로 열반에 드는 입망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중생의 죽음은 미망(迷妄)의 윤회 속에 헤메는 것이지만 깨달은 이의 죽음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요, 번뇌의 적멸(寂滅)이며, 법신(法身)의 탄생입니다. 따라서 좌탈입망은 죽음을 삶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수행력을 겸비한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 역사에서도 중국 선종의 3조 승찬 스님을 비롯하여 보조국사 지눌스님, 한암스님, 만암스님 등 일세의 고승들이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서옹 큰스님의 좌탈입망은 큰스님의 수행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스승이신 만암스님에 이어 스승과 제자가 모두 좌탈입망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서옹 큰스님의 크나큰 수행력을 기리는 서옹대종사 사리 친견법회와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사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큰스님의 덕화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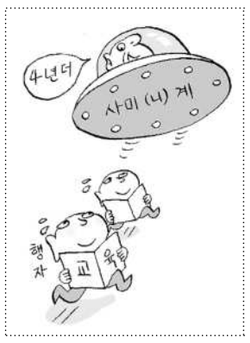
● 사리친견법회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옹당 상순대종사 49재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재 - 1월 30일 ● 서옹 큰스님 사진전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새 '틀' 필요한 승가교육

종교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훌륭한 종교지도자를 육성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정신적 수행력과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종교조직은 발전하는데 비하여 그렇지 못한 종교조직은 소멸되기 쉽다. 따라서 시대를 선도하고 정신적 지도력을 갖춘 종교지도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오랜 수행과정을 통해 배출된다.

또한 종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승가교육이 타 종교의 성직자교육에 비하여 교육기간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가교육이 불교 내부의 욕구나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통 승가교육은 수행 습의와 교학의 기초를 연마하는 데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님들의 지적 수준과 수행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승가교육의 교재나 내용, 그리고 교육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육은 주어진 기간 동안 피교육자를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승가교육이 사회교육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

사회교육 수준·방법 참고해야

교육 반듯해야 수행도 '반듯'

둘째, 승가교육체계의 비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최소 6개월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사미(니)계를 받고, 승가대학(강원)의 기본교육 4년을 수학하고 비구(니)계를 받는다. 그리고 다시 중앙승가대학교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스님들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승가에 주어진 역할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측면도 있다. 또한 수행만을 중시하고 체계적인 승가교육을 무시하는 경향도 문제가 있다. 결국 현행의 '선득도 후교육'은 '선교육 후득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한 뒤 구족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가교육과 수행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증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중생, 보리, 실제의 세 가지 회향정신이 승가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때 한국불교는 발전할 수 있다.

승가교육제도 개선의 논의가 결실을 거두어 더욱 여법하고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스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개정 '유아교육법'이 불교 유치원에 줄 영향은?

활성화 호재…자율운영이 관건

재정·원아 증가 등 안정적 운영 기대
"특수성 감안돼야" 건의서 제출 계획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불교계 유치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만5세)의 유아 교육 · 보호는 무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유치원 종일반 확대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비용 보조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 · 보육위원회 설치 △유아관련 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불교계 유치원들은 유치원 운영과 교사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유치원 활성화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저임금과 비안정적인 생활로 질 높은 교육을 담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법의 핵심인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과 종일반 확대 및 지원 법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원아증가라는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80여 곳에 달하는 불교계 유치원 중 대부분은 종단이나 사찰에서 직 ·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다.

강원도사립유치원연합회장 효종 스님(성불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법 통과로 인해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적 안정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과 교사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장 정인 스님은 "유치원들이 공교육체제에 편입되면 영세한 절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정부의 간섭을 직 ·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유치원 운영방식 등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겠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는 우려의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종교계 유치원의 설립배경과 그 특수성, 독립적 운영의 중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련 단체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한국불교문화 강좌'에 외국인 관심 꾸준

템플 스테이로 시작된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식을 줄을 모른다. 서울국제여성협회(SIWA)가 최근 올 상반기 문화강좌(Interest Group) 참가자 등록을 받은 결과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가 주관하는 '한국 불교 및 문화 강좌'(Korea & Buddhist Culture)에 12명이 신청을 한 것.

서울국제여성협회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에는 모두 38개의 프로그램이 등록돼 있으며 한 강좌당 평균 6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956년 결성된 서울국제여성협회에는 60여 개국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번 강좌 등록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다.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한국 불교 및 문화 강좌'는 템플 스테이의 변형으로 1월 28일부터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매월 2, 4주 수요일 오전 10~12시, 모두 8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첫 강좌인 28일은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상물 시청, 연등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선, 다도, 사찰음식 만들기, 선 요가 등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지역조직 활성화로 전진하자"
대불청 핵심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가 올 한해를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조직 · 포교 · 교육 · 연대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불청 T/F Team 교육'으로 앞으로 불청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불청 핵심 활동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7월 16일부터 진행될 불청 T/F Team 교육사업은 리더그룹, 실무자그룹, 전문가그룹으로 나눠져 8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정상옥 회장은 "불청 T/F Team 교육이 일시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불청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 · 지회 안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검증 돼야 진정 접수"
조계종 호법부 방침 세워

조계종 호법부가 검증 불가능한 무기명 진정이나 투서, 탄원 등에 대해 무효처리하겠다고 1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정 내용이 6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 무르익는 '불교환경의제 21'

불교계 환경지침서가 될 '불교환경의제21' 초안이 2월말 경 확정된다. 확정된 초안은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보고 및 결의문 채택 후 교구본사 주지회의 보고 및 결의를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불교환경의제21'이란?

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채택된 위한 행동강령이다. 모든 지구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환경의 파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실천계획을 강구했던 것이다. 불교환경의제21도 불교계가 21세기 환경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에 관한 기본원칙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일 뿐 아니라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분야별 의제

불교환경의제21은 크게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네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다.

'환경 불교' 실천 지침
내달 초안 확정…금년말 확정될 듯
지원·점검 위한 예산·불자참여도 관건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산중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사찰 주차장을 일주문 밖에 설치토록 하는 대기오염 · 소음 없는 친환경적 사찰 구현. 생태사찰 만들기 분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에 '산감(山監)' 소임을 되살려 환경담당 전문가로서 임부를 부여하고, 종단에 문화재 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사찰불사 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법제도의 정비, 관련기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종단은 의제 수립의 실질적인 책임주체로서 장 · 단기 계획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및 제도 정비와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찰들은 의제 실천의 주요한 주체일 뿐 아니라 종단과 재가불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불교 NGO들은 의제 지원 및 점검에 도움을 줘야 하며 재가불자들도 의제가 정착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별도의 의제 추진위 사무국을 운영해 정책 개발 및 의제실천 지원 및 점검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종단과 NGO 연계, 전문가 집단 용역 등이 가능하기 위해선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과제와 전망

종단-사찰-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조건이다. 불교환경운동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불교계 내 관심 있는 소수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유철주 간사는 "의제실천 점검 및 종단 환경 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가 끝나면 올해 말 확정안 및 종단 5개년 환경 종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1면에서 계속

"스님들의 수행환경이 개발과 성장 논리에 좁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불교계의 목소리가 신뢰를 얻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의 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84년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서울 구로구 삼화포교원에서의 야학활동이 불교와의 첫 인연이었다는 김형남 변호사. 무엇보다도 조계종 종헌 · 종법의 체계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종헌 · 종법은 사회법 체계를 너무 수용하면서 불교 내부적인 특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사회법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해 승가 고유의 계율을 살려내는 데 부족했습니다. 계율에 의한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김봉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종단 내 자율적인 법률체계에 의한 불교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불교계는 사회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짙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종헌 · 종법·종령 등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다.

"불교가 각 지역사회나 일반인들에게 더욱 두터운 신망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 사찰의 불명확한 재산권 분쟁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자 법조인이 불교계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연수원 1000명 시대에 법조인들이 일할 곳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단호히 'NO'라고 답했다. 할 일은 많다는 것이다. 양질의 법적 서비스는 다양해지고 넓혀졌음에도 불구, 정작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이런 흐름에 떨어져 있어 불자로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은 불자로서 신심을 키울 수 있고, 법조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교계를 당당히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리적인 가닥을 잡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최초 불교 마라톤 열린다

부처님오신날 맞아 5월 16일 경주
스님·장애우 함께 수행·자비 실천

불교계가 주최하는 최초의 마라톤대회가 5월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 불국사와 경주시는 5월 16일 오전 10시 경주 화랑교육원 운동장에서 '불기2548년 제1회 부처님오신날 경주남산 산길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불교마라톤클럽연합회와 대구 · 경북, 경주 마라톤클럽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불교계가 주최하는 최초의 마라톤 대회라는 점과 함께 불교성지를 도는 산길 마라톤,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마라톤, 일반인과 스님, 장애우와 봉사자가 함께 하는 자비실천의 마라톤으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회는 화랑교육원을 출발, 남산 포석정을 돌아오는 20km 산길 마라톤과 함께 장애우들을 위한 10km걷기 종목을 따로 두었으며, 안전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참가인원을 일반인 2천명, 장애우와 봉사자 548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자비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추천된 중증장애인 10여명에게 전동휠체어를 전달하고, 남산사랑 환경운동 캠페인도 함께 할 계획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합장염주가 무료 배포되고, 당일 불국사 무료관람의 기회도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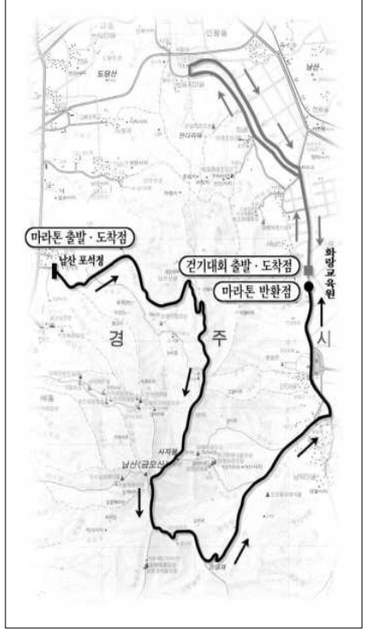
상은 남 · 녀 각 1위에서 10위까지의 선수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최고령 · 최연소 참가상, 베스트 드레서상, 최다 참가동호회상, 자원봉사단체상, 장애우 격려상 등 훈훈한 사랑이 느껴지는 다채로운 특별상도 준비돼 있다.

참가접수는 2월부터 개설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개설 전까지는 불교마라톤클럽 까페(http:/ cafe.daum.net/buddhamarathon)에서 대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종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며 마라톤 포교를 펼쳐온 불교마라톤클럽연합회 회장 진오 스님은 "대중화된 마라톤을 통해 자연스러운 불교포교의 장을 마련하고 불교적 역량과 일반인의 관심을 복지사업에 끌어와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대회 개최의 취지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봉축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마라톤 · 도보 코스



북한사찰 성지순례 추진

평불협, 올 사업 확정
인천~평양 직항로 이용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인천~평양 직항로 왕복을 통한 북한사찰성지순례 년 2회 실시 추진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평불협은 1월 14일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법타 스님, 정인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북한최고작가 작품전시회(서울, 대구), 제23차 윤이상음악회 참가(9월 중), 결식아동 및 북한 동포돕기 통일음악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평불협 창립 12돌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 통일법당 통일약사여래부처님 점안 및 개원식은 2월 12일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개최된다.

통일법당은 대지 81평, 건평 64평, 지상 2층 가옥을 개?보수해 만들어졌다. 평불협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기원 약사여래 본존불 삼천 약왕보살 조성불사'를 진행중이다. 문의 : (02)735-5558, 농협 053-01-256360 예금주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남동우 기자

조계종-사회단체 만남 정례화

법장 스님,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만남이 정례화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월 19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맞이 불교신행 ·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원 공모사업 이전 또는 이후라도 수시로 종단과 연계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장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단 수행체계 정립, 교구본사별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포교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신행서비스체계 확립, 인사평가제도 도입, 전통문화체험센터 건립 등 올해 조계종 주요 사업들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또 외국인노동자 및 소년 · 소녀가장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사회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북한산 문제와 관련 "일부에서 정부와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불우이웃에 '설날 자비'

의정부 좋은일 하는 모임 차례상·신수회 교도소 방문

의정부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정암)은 1월 19~20일 의정부 의2동 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불우이웃 100세대에게 자비의 차례상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설날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각 세대에 전달된 차례상에는 소고기 1근, 닭 1마리, 떡국 1kg, 만두 1kg, 유과, 약과, 사과, 배, 귤, 사탕, 생활용품과 세배돈 5천원이 들어있다.

차례상 후원에는 석굴암신도회, 관음사, 성진한과, 수월도량신도회, 고운박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약사암, 해인정사,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관음정사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신수회(회장 이남숙)는 18일 목포교도소를 방문하고 불서 200여권, 내의 20벌, 영치금을 무연고 불자 재소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서울, 대전, 광주 지역에서 교도소를 찾아온 신수회원들은 불자재소자들을 직접 면회하고 "불법에 의지해 함께 정진할것"을 다짐했다.

신수회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 모임으로, 이번 재소자 위문품전달에는 자비회, 광주불교교육원, 현대불교신문사가 동참했다.

김원우기자

파라미타·청교련

문광부 지원단체 선정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2004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돼 청소년 국제교류와 환경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 파라미타, 한 · 몽골청소년교류 등 행사 다양

몽고의 드넓은 초원의 공기를 말위에서 느낀다? 생각만으로도 짜릿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있다. 파라미타 서울지부와 우리는 선우가 함께 개최할 '한 · 몽골청소년 국제친선교류 캠프'가 바로 그것. 소년소녀가장 50명을 포함, 한국측 300명과 몽골측 150명 등 450여명과 함께 할 국제교류 캠프는 몽골 울란바토르 나이람달 국제수련원에서 7월 28일~8월 2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인 '음악놀이 페스티벌'은 1월부터 9월까지 각 지역별 예선을 거쳐 총 1천여명의 청소년들을 한자리(국립청소년수련원)로 결집, '밝고 건강한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음을 내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파라미타 충북지부가 담당하는 '금강환경답사와 환경사진전시회'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10회에 걸쳐 진행된다.(02)732-6165

■ 청교련, 외국인노동자 문화체험 · 음성도서 전달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에 시달리다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그들의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선다.

청교련이 3월 28일, 4월 25일 양일간 강화문예회관에서 펼치는 한국문화체험 한마당과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음성도서 만들기가 바로 그것.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 110여명과 청소년 100여명이 함께 할 체험마당은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토록 도울 예정. (02)735-8165

김은경 기자

무심 스님 영어법회

2월 8일 대전 자광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탄허문화재단 자광사(주지 청아)는 2월 8일 오전 10시 적광전 3층에서 미국 출신 무심 스님(국제선원 계룡산 무상사 주지)이 진행하는 영어법회를 연다. 영어법회는 1시간 동안 통역없이 영어로 법문이 진행되며, 곧바로 참석대중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1958년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한 무심 스님은 1980년 미국 보스턴대학 화학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1984년 화계사 숭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8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화계사국제선원장과 부산 남산국제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를 맡고 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열리는 자광사 영어법회는 3월 14일 현각, 4월 11일 지광 스님이 진행한다. 문의 (042) 822-9220

김원우 기자

맑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 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1알 6kg ■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청국장

메주 주문 연락처 H·P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부산 051)514-3566 울산 052)245-0337 창원 055)299-5419
군산 063)452-7852 강릉 033)644-9009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063
대전 042)862-8638 수원 031)253-2677 광주 062)681-3268

복식품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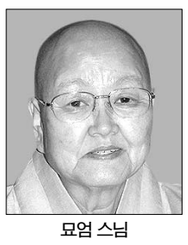
1세트 (책 1권 + CD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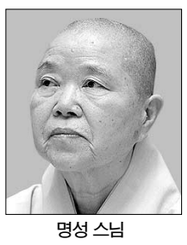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

‘강의 · 연구가 수행’ 평생 원력

후학 양성 힘쓰는 비구니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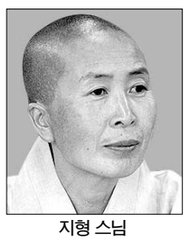
14.9%. 전국 대학의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 어떤 터부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학계에서조차 ‘남녀의 벽’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벽을 깨고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다. 바로 학계와 전통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한국불교의 100년 앞을 준비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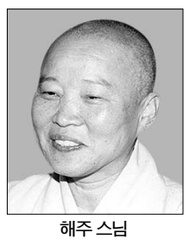

묘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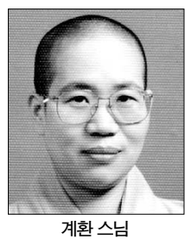

명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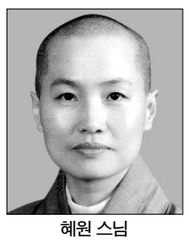

묘순 스님


일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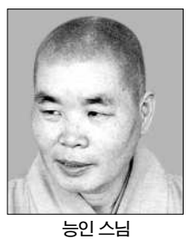

지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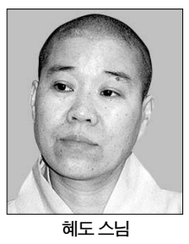

해주 스님


계환 스님


혜원 스님


본각 스님


능인 스님


혜도 스님

여건 열악해도 업적 ‘괄목’

학 계

비구 스님들도 별 차이는 없지만 비구니 스님들 역시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 정도가 이들 스님들의 주 활동무대. 현재 이들 3개 대학에서 불교학 관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스님은 해주 계환 혜원(동국대 서울캠퍼스) 대원(〃 경주캠퍼스) 본각 혜도 능인(중앙승가대) 스님 등 모두 7명이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해주 스님(화엄학 전공)은 대원 스님과 함께 최초의 ‘비구니 교수’로 알려져 있다. 두 스님은 1990년 2학기 때 각각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교수로 임용됐다. 해주 스님은 86년 동국대 선학과에서, 87년 중앙승가대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 이 두 학교 ‘최초의 비구니 강사’ 기록도 함께 갖고 있다. 86년 경주캠퍼스에서 강사 생활의 첫 테이프를 끊은 혜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중국선종사 전공)은 98년 박사학위를 받아 학계의 비구니 스님 가운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비구니 박사 1호’다. 해주, 혜원 스님이 순수 국내파라면 계환 스님(중국불교사 전공)은 대표적인 일본파 유학승. 일본 화원대를 졸업한 후 교토 불교대에서 석 ·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본각, 혜도, 능인 스님은 모두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해외파들이다. 본각 스님(화엄학 전공)이 일본 도쿄 입정대와 구택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능인 스님(아동복지학 전공)은 교토 불교대에서, 혜도 스님(노인복지학 전공)은 숙덕단기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최초의 비구니 교수’ 중 한 명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원 스님(유아교육과정 전공)은 불교아동학 분야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숙명여대에서 ‘불교가 한국 전통 아동교육에 미친 영향’(1989년) ‘불전 설화의 유아교육적 가치 탐색’(1994년)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는 아니지만 강의를 맡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서는 묘주, 효탄, 소운, 정운 스님 등이 눈에 띈다. 묘주 스님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불교학과 심리학의 접목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고, 고려불교사 전공의 효탄 스님은 <고려사> 안에서 불교관계 사료들을 뽑아내 주석을 단 <고려사 불교관계사료집>이란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소운 스님은 한국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으로 있다.

강원 교육 향상의 주역

교육계

현재 조계종의 전통강원 20곳 가운데 사미니 강원은 동학사,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가나다순), 삼선 승가대학 등 다섯 곳. 학계와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 곳에서 묵묵히 비구니 교육 불사에 원력을 쏟고 있는 스님들도 있다.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현대 비구니 강원(승가대학) 역사의 첫 페이지에 올라 있는 스님들이다.

묘엄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유명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66년, 묘엄 스님은 청도 운문사로 내려가 강주(학장)를 맡았는데 이것이 현대 비구니 강원의 효시이다. 그 뒤 수원 봉녕사로 옮겨가 봉녕사를 대표적인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만들었다.

묘엄 스님이 봉녕사로 옮기고 난 뒤 운문사로 온 명성 스님은 운문사를 국내 승가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와 학인수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비구니 교육의 요람’으로 키운 장본인이다. 명성 스님은 동국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아 전통과 현대학문을 두루 섭렵한 대표적 강백으로 통하는데, 강원 비구니 강사 중에서 처음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순(삼선 승가대학), 일초(동학사), 지형(청암사) 세 학장 스님 역시 전통 강원을 거쳐 오랫동안 비구니 강원 교육에 헌신해 왔다. 묘순 스님은 78년 삼선 승가대학을 개설한 이래 학장직을 맡고 있고, 지형 스님은 87년 청암사 강원을 사미니 강원으로 개설한 스님이다. 86~90년 동학사 승가대학장을 맡았던 일초 스님은 2002년부터 다시 학장으로 있다.

대부분 강원은 2~3명씩의 강사를 두고 있는데, 흥륜(운문사) 상덕(청암사) 적연(봉녕사) 스님 등이 전통 강원의 교육을 마치고 ‘장기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 스님들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강원 교직자들 사이에서도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반대학이나 외국에서 석 · 박사학위를 받고 부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일진(운문사) 상일(봉녕사) 보련(동학사) 스님이 일본 교토 불교대에서, 세등 스님(운문사)이 도쿄 구택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조계종 문화부장으로 가 있는 탁연 스님은 강원 비구니 강사 중 최초로 박사학위(일본 도쿄 입정대)를 받고 봉녕사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명선 스님(동학사)은 일본 대곡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운산(운문사) 수경(삼선 승가대학) 스님 등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박사 학위 15명 … 각계서 활동

국내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스님은 몇 명이나 될까? 한때 박사과정 수료 이상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었던 ‘담소회’의 자료에 따르면 모두 1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 외를 통틀어 ‘최초의 비구니 박사’는 진홍 스님이다. 80년대에 대만 문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중앙승가대 등에서 강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서울 청룡사에 주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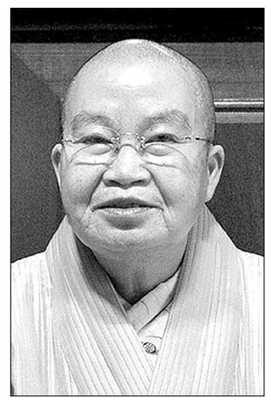
해주, 본각, 혜원, 계환, 대원, 능인 스님과 묘주, 효탄, 소운 스님이 현직 교수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명성(운문승가대학장) 명선(동학사 승가대학 강사) 스님은 강원 교직계에 종사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공주 금강원 복지원장을 맡아 노인복지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운월 스님은 세계여성불자대회 한국 유치의 숨은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석담, 서광 스님 등 국내 · 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도 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3> 정일 스님

절 문 열어 포교 모범 보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밥 먹고 똥 누는 게 다인 사람한테 뭘 들으려고 해. 일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정일 스님(부산 소림사 회주)은 그러나 부산불교계의 크고 작은 신행단체와 부산 교계를 이끌고 있는 일꾼을 키워낸 ‘어머니’ 같은 존재로 통한다.

35년 전, 소림사 주지를 맡은 스님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수용하듯, 법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행단체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동의 건물뿐이던 당시의 소림사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거사림회 등 법회를 보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로 넘쳐났고, 거의 매일 법회가 열렸다.

“그 때는 학생들이 풍기는 발냄새가 가득 했지만 오히려 향기로웠어. 절에 와주는 것만도 기특하고 고마웠지.”

법회 장소 찾아 헤매던 신행단체 모두 수용

소림사 산림법회 하루 1천명 이상 참석

사람을 내치는 일이 없는 스님의 성품은 많은 스님들이 외면했던 신행단체를 품어 안았고 지금도 행사장에 가면 얼굴도 모르는 이가 달려와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법사였던 은사 금광 스님이 열었던 화엄산림, 법화산림, 참회산림을 47년에 걸쳐 꾸준히 이어오며 소림사를 도심포교도량으로 키워냈다. 산림법회가 흔치 않았던 당시, 하루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법석이었다.

좁아지는 도량을 견디다 못해 95년 불사를 시작했지만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의 반대가 몰아쳤고 시공사까지 부도를 내면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은 “그 당시 6~7년 동안 냉방에서 지낼 정도였는데도 모든 어려움을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도 정진하며 헤쳐나가시는 모습이 눈물겨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정일 스님은 “부처님이 계시고 사람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있어 불사가 이뤄졌다”며 공덕을 부처님께로 회향했다.

스님은 1952년 15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스님이었던 사촌언니를 따라 소림사로 출가해 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출가 후 속가에서 소림사로 찾아와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깊이 귀의한 후였다. 물을 길어 나르고 연탄 한 장으로 견디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금광 스님께 배우는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좋았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주무시는지 모를 정도’라는 스님의 기도 정진은 모두 금광 스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금광 스님은 운문사 초대 비구니 주지를 역임하며 운문사 중창불사를 이룬 한국 비구니계의 큰 어른이다.

아무리 사중(寺中)살림이 바빠도 제자들이 선방이나 강원에 간다면 절대로 붙잡지 않는 스님, 칠순이 넘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손수 차를 준비해 건네는 스님의 모습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이념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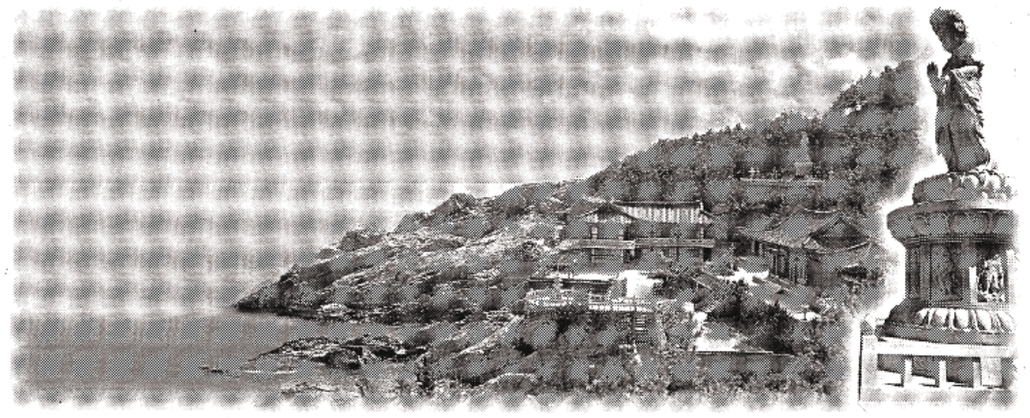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경주 동천동 소금강산에서 발견된 마애선각여래입상.
사진제공=김환대 씨(경주문화연구원)

마애선각여래입상 발견
통일신라말기 작품 추정

김정화 씨 경주 동천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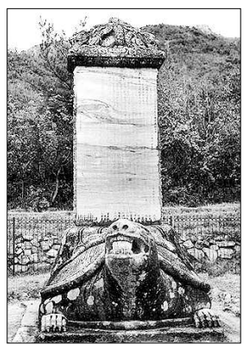
경주시 동천동 석탈해왕릉(사적 제174호) 뒤 소금강산 국립공원에서 통일신라 말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마애선각여래입상(磨崖線刻如來立像)'이 동국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정화 씨에 의해 발견됐다.

키가 2.46m나 되는 이 여래입상은 마멸이 심한 상태이지만, 얼굴주변 광배가 선명하고 층을 이룬 옷주름이 율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입상은 바위 표면을 다듬지 않고 바위의 자연스런 굴곡을 그대로 살려 '자연미'가 돋보인다. 이는 바위를 인공적으로 평평하게 조성한 다른 경주 신라 불상과 구별되는 독특함이다. 또 '경주 남산 선각육존불', '굴불사지 사면석불상 북면 육비관음보살상'에 이어 경주 지역에서 3번째로 발견된 선각불상으로 희귀성도 지닌다.

또 불상 뒤편의 바위에는 주술 신앙의 흔적으로 보이는 '#' 문양이 2개 있어, 토속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곳에 불교가 융합되면서 불상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유진 기자

도갑사 도선 · 수미비
백련사 사적비 보물 지정





전남 영암군 '도갑사 도선 · 수미비'(사진 좌)와 강진군 '백련사 사적비'(사진 우)가 각각 보물 제1395, 1396호로 지정됐다고 1월 16일 문화재청이 밝혔다.

'도갑사 도선 · 수미비'는 통일신라 도선국사와 조선 수미왕사의 행적을 기록한 1636년(인조 14년)부터 1753년(효종 4년)에 준공된 높이 5.17m의 석비다.

전남 유형문화재 제137호에서 보물로 승격된 '백련사 사적비'는 백련사 불사(佛事)에 참여한 사람의 인명이 기록된 높이 4.47m의 석비다. 이 사적비는 귀부와 비신이 각각 고려, 조선시대에 제작돼 건립연대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양 측면에 양각된 초화문은 이 시대 석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예다. 오유진 기자

불교무형문화재 전승 · 보존 이대로 안된다 下 / 불교계 무엇을 해야 하나

분분한 의견 모아 '로드 맵' 그리자

제대로 된 인재 발굴 · 양성의 '틀' 필요
중앙기구 설립해 원형보전 등 주도해야

"불교 전통 문화는 불교계 스스로가 발굴, 전승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전통 문화를 살리지 못해 불교계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꼴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분명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을 바꾸자

불교무형문화의 맥을 제대로 잇기 위해서는 인재발굴이 가장 급선무다. 판소리계의 '유태평양'과 같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종립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종립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초 · 중 · 고 · 대학으로 이어지는 종립학교에서 전통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불자 교사들이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늘이고, 전국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불교학생회를 육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용어정리부터 다시

제도적으로는 '성보보존법'을 한국불교의 실정에 맞게 고쳐, 성보문화재의 개념 정립, 용어정리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현재 성보보존법은 국가 지정문화재 분류에 '성보', '불교'만을 대입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성보보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은 "국가 지정무형문화재의 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단청장의 경우, 단청과 불화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에서는 하나의 문화재로 분류했다"며 분류의 세분화를 주장했다.

전통사찰 건물 하나를 지을 때에도 대목장, 소목장, 목공예장, 단청장, 석공, 와공 등 필요한 장인이 다양하다. 영산재는 범패 · 작법 · 도량장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범패도 바깥채비 · 안채비 · 화청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청도 사찰과 궁궐 단청이 달라 구분 가능하다.

지정문화재 외에 사찰 문화 속에서 가사장, 사찰 음식 전문가, 발원문이나 불교 음악의 노랫말을 쓸 수 있는 문학인도 발굴해야 한다.

원형자료에 관심을

이렇게 발굴된 무형문화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도록 원형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불교역사 · 문화적 시각에서 사진, 녹화, 녹음 등의 원형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불교계가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연구자 지원을 활성화해 이를 심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구 절실

힘있는 불교문화행정을 펼칠 중앙 기구의 설치도 적극적 대안의 하나다. 범종단적으로 불교문화보존 기구를 만들어 전통문화 발굴, 성보문화재 관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기구의 운영재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찰 관람료 일부를 '문화재보존기금'에 투자해, 재정이 확보된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불교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각계에서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적과 대안을 충분히 수렴, 최선의 '길'을 찾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역시 국가와 불교계가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9>

은유로서의 질병

조류 독감이나 사스(SARS), 그리고 광우병 등으로 저녁 뉴스가 시끄럽다. 사람들은 '말세'라 말하며 마치 자연이 잘못되어 조용히 지내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하는 처참한 화면이 TV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무서움이 아닌 '인간이 지닌 탐욕'의 무서움을 느낀다. 인간은 오직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하나로 과도하게 밀집된 사육 환경을 조성해, 늘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질병이 극도로 드러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밀집한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출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걸릴 가능성이 몇 천배나 낮은 조류독감이, 그토록 너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째서일까? 평소 축산에 관심도 없던 우리들이 보이는 과민한 모습에서 나는 '인간이 지닌 막연한 두려움'을 본다. 언론의 부추김으로 증폭되는 집단의 터질 듯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유한한 생명체로서 느끼는 불안감일 뿐 결코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물을 무자비하게 생매장하고, 이를 연일 전쟁 시황 중계하듯 보도해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언론이나 이를 보며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마음은 보신을 위해서라면 뱀을 멸종되도록 잡아먹고 살아있는 곰쓸개에 관을 꽂아 즙을 마시는 이 시대의 광기에 가까운 이기적 인간 심리의 변형일 뿐이다.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방역의 미비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인간의 오만'을 본다. 현대 과학이나 지식의 힘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순진한 어리석음말이다.

양날이 선 칼과 같은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오직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인간 위주의 관점에서 출발한 밀집된 사육환경과 자연 질서 파괴가 대규모의 전염병, 광우병 등 새로운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 속의 채워질 수없는 탐욕과 오만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한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분야를 막론하고 생산성을 추구하며 열심히 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생산성 향상이란 과연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만 탐욕, 질병 만드는 직접 원인
'실체 없음' 진리 깨달을 때 고액 초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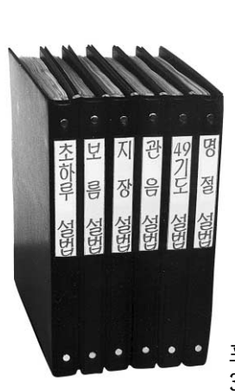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이던 간에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일어나며 우리 속의 막연한 두려움이란 마치 신기루처럼 자기가 지어내어 스스로 그 안에 들어앉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임을 깨어서 바라보아야 한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자신을 포함하여 육근(六根)으로 지어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음을 보아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를 통해 모든 고액(苦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간명하게 말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새로 나온 <프리즈냐 6권> 특별가 책정!!!

프리즈냐(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 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 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근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겹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냐>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 대 설 법 연 구 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몇 km 걸었습니까?" "無"



걷기.

우리 삶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이 단어에서 누군가는 '여행'이나 '고된 여정'을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6년간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1979년 이후 차와 지하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걸어서 몸을 움직여 온 원공 스님(사진)에게 '걷기'는 바로 수행이다. 지난 2002년 진행한 '한 · 일 평화 도보 대장정'도 마찬가지였다. 스님과 11명의 대원은 2002년 3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경기장 스무 곳을 걸어서 순례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35㎞씩, 123일간 4천여㎞를 걸었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서울과 부산을 네 번 왕복한 셈이다.

하지만 한 일본 기자가 "그동안 걸은 거리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스님의 대답은 "무(無)"였다.

"20년이 넘게 걸어온 길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알 수 없을 뿐더러, 숫자는 내가 걷는 이 수행의 진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 걷기는 의식주를 덜 가지고 그것에 덜 집착하기 위한 수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었을까>는 바로 이 대장정의 기록이다. 책을 읽어보면, 대장정이 단순히 걷는 데만 의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땅 곳곳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고, 그 자리에 도라지 씨



원공 스님과 11명의 대원들은 123일간 '한 · 일 평화 도보 대장정'을 펼쳤다. 사진은 대장정 28일째인 2002년 3월 27일 일본 하쿠마산후도인(白馬山不動院) 절로 가는 모습.

123일 평화도보 대장정 참가했던 원공 스님과 11명 대원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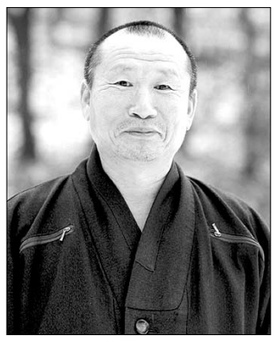
를 뿌렸다.

"사람만큼 자연을 오염시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일본 돗토리 현 바닷가에는 한국의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포항 앞바다에는 일본의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편리함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도 늘어난 것입니다. 대장정 기간 동안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 현장을 몸으로 보고 느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대장정의 중간 목적지로 월드컵 경기장을 삼은 것도, 경기장의 웅장함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 크고 아름답게 보이는 건물이 자연의 눈으로 보면 자연을 가장 심하게 파괴한 결과물이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요즘 우리는 자동차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빠르고 편하기 위해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조용한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꽃과 새를 만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호의는 절반만 받는다', '우리가 머문 곳은 늘 깨끗하게 치운다' 등의 원칙을 가진 스님과 '걷기수행'에 동참한 대원들의 소감도 인상 깊다.



원공 스님

"'길을 걷다보면 자기 눈썹도 무겁다'던 원공 스님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웃음으로 넘겼는데, 나중에는 '머릿속 생각조차도 무겁게 느껴져' 그것마저도 비워야 했다."(김광수)

"사색을 통한 자기 성찰을 목표로 잡고 겁도 없이 길을 떠났지만, 사색보다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한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대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격려의 말이 아니었던가 싶다."(이주연)

지인들이 "차비나 하라"고 건네준 돈을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고 있는 스님은,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역시 북한 어린이 돕기 '십시일반'에 기부할 예정이다.

"끝없이 걸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스님은 2월 초쯤 또 다시 길을 나설 예정이다. 목적지도 기한도 없는 여정을.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조정육 지음, 아트북스, 1만5천원)= '동양미술 에세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이 책은 한 · 중 · 일 삼국의 그림을 통해 지은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파란 많은 삶을 살다가 내림굿을 받고 제석불이 된 언니의 사연이 담긴 '삼불제석', 예술가와 가난의 문제를 생각하는 김명국의 '달마도', 연꽃이 장관을 이룬 '연화금수도' 등 그림에 얽힌 자신의 체험과 감상을 담았다.



■ **<행복한 동양학>**(원황철 지음, 지영사, 1만3천원)=불교방송에서 '몸을 바로 하는 동양학'을 강의했던 원황철 씨의 건강 지침서. "동양학은 단순한 이론의 학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풍요와 건강을 일구어내는 삶의 양식"이라는 지은이는 자신의 눈과 몸, 명(命)을 제대로 알고 다스림으로써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살아가는 기쁨>**(박형 지음, 화니북스, 8천5백원)="잘 먹고 편히 사는 것만이 살아가는 이유라면 왠지 산다는 게 서글퍼집니다.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일 것입니다." 변리사이자 아들과 딸을 둔 50대 가장인 지은이가,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생각들을 모아 책으로 묶었다.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삶의 기쁨을 찾는데 작은 힘이 될만하다.



욕심내면 잃게 된단다

'마음을 다스리는…'

김영만 글/ 김석배 그림

바른사 / 9천원



"산등성이 작은 암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혼자 사는 암자라 훔쳐 갈 물건이 없었지요. 잠에서 깬 스님이 이 밤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먼 길을 수고스럽게 왔는데, 어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이오?' 줄 것은 없고, 내 옷이라도 가지고 가시오."

<어린이 팔만대장경>,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등을 쓴 아동문학가 김영만 씨가 <법구경>의 시를 풀이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동화로 풀어놓은 만화책 <마음을 다스리는 어린이 법구경>을 펴냈다. 책에는 주인공 선재동자와 코끼리 실버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법구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230여 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더디 피는 꽃은 오래가서 좋으니…"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맹난자 지음

선우미디어 / 4천원

흔히 수필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가벼운' 글이라 생각하기 쉽다. 물론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수필이란 장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륜이 묻어나는 한 편의 수필은 그 어떤 경구보다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그것은 마음먹은 대로, 또 애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어서 일찍이 시인 도연명도 술 항아리를 기울이며 탄식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한 나무에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더디 피는 꽃이 있다. 일찍 피어난 꽃은 일찍 떨어지게 마련이고, 늦게 피어난 꽃은 오래 가서 좋다고들 말한다. 저마다 이렇게 제 속도와 시운(時運)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조바심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에세이문학> 발행인인 수필가 맹난자 씨가 펴낸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는 도서출판 선우미디어의 명수필기획선 제29집이다. 책에는 지은이가 직접 고른 수필과 고사성어 에세이 등 30편의 글이 담겨 있다.



지은이는 자신의 글에 대해 "깊이와 감동이 없는 부질없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한 때는 내게 의미 있는 주제로 다가온 것들"이라며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노인처럼 밤바다에 낚싯대를 드리운 채 몇 날 몇 밤을 지새운 노정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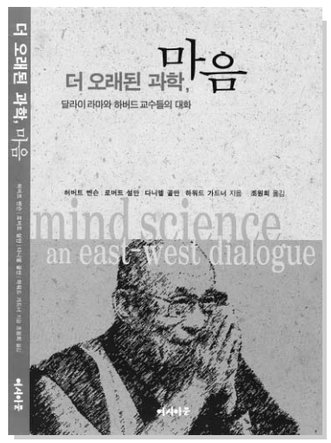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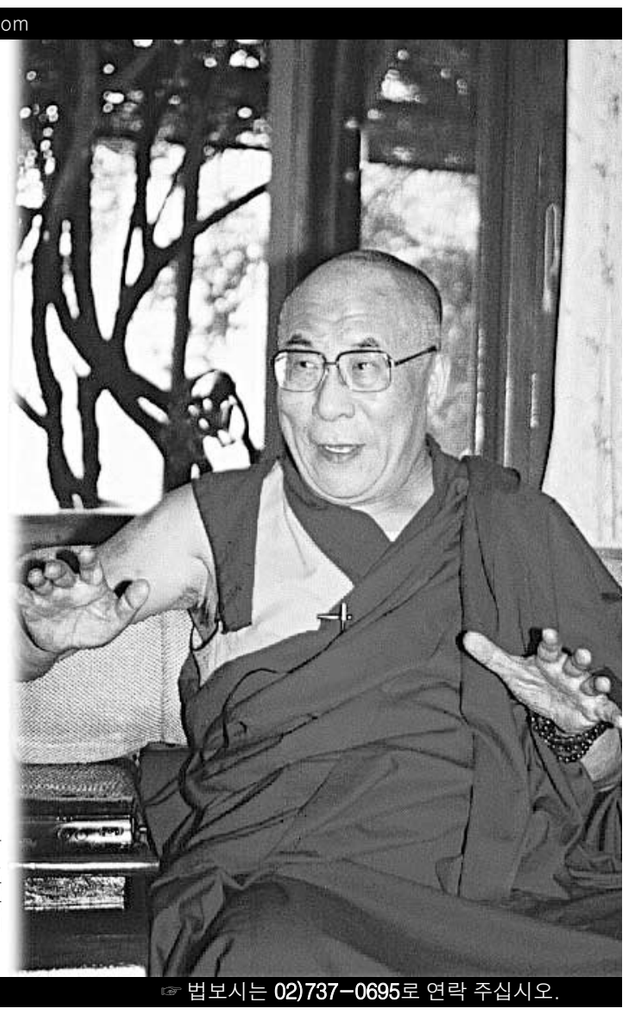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3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4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광
6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7	이거룡의 인도사원순례	이거룡	한길사
8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	달라이 라마	경성라인
9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낫한	장경각
10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작명대백과사전
- 쉽고, 간편하게 좋은 이름짓기 해결! -
金培成 지음.
경기대 국제대학원 동양철학과 겸임 교수가 시인의 감성으로 5년간에 걸쳐 성씨별로 최상의 이름이 되는 이름 하나하나를 손수 창작하여 완벽하게 수록해 놓은 한국인의 작명대백과사전.
당신을 일평생 훌륭한 작명가로 만들어줄 단한번의 기회
'작명대백과사전' 이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 한정판매!
명 운 당
신도가 많고 존경받는 스님들은 무엇인가 달랐다!
지성과 정성을 들이며 새생명의 자녀를 위하는 신도들에게 훌륭한 이름을 제공하는 능력있는 '우리스님! 자랑스럽다'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복잡한 작명법과 한자의 획수를 다몰라도 가을과 겨울생은 木火를, 봄과 여름생은 金水에 해당하는 이름을 '작명대백과사전'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불가에서는 명체불이(名體不二)라 하여 '몸과 이름은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신도분들에게 운좋고 복많은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작명대백과사전 소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국에서 사용되는 성씨(286개)에 맞추어진 이름이 모두 수록된 작명대백과사전은 세련되고, 복많고, 운좋은 이름으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시대에 맞춰서 작명되어야 한다는 현대식 해석법으로 손수 작명된 '이름백과사전'은 더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Tel. 02)312-3254 / 02)312-3274 http://www.nemebook.co.kr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 요법이 널리 활용
된다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 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mind science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선우논강 · 화림원 동안거 간경결제 회향 현장

주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통해 본 오늘의 한국불교

선우논강과 화림원이 주최한 '2003-2004년 동안거 간경결제'가 17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회향됐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린 이번 간경결제에는 토론때마다 100여명의 출, 재가 수행자가 모여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통해 본 오늘의 한국불교'를 주제로 8번에 걸쳐 열띤 논쟁을 벌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고우스님의 총론격인 법문에 이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중도와 수행법' '불교 수행과 현실문제' '불교, 현실참여 어떻게 할것인가'로 나눠 6시간에 걸쳐 각자의 견해를 내보였다. 종합토론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성철 禪'은 따로 없다

고우 스님, '손가락' 아닌 '달' 볼 것 강조



이번 간경결제를 통해 '성철스님 선(禪)'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갔지만 '성철스님 선'은 따로 없다. '성철스님 선'이 곧 부처님 말씀이고 달마스님, 역대조사의 말씀이다.

선사들이 불교를 설명할때 '1기1경1언1구(一機一境一言一口)'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 기는 몸이나 동작으로 표현하고, 경은 주장자나 불자 등의 객관적인 물체를 가지고 하며, 언은 짧은 말, 구는 긴 말로 불교를 표현한다. 만일 '1기1경1언1구'로 불교를 표현했는데 그것으로 깨달았다면 매우 좋은 일거만 선에서는 '맨살을 긁어서 부스럼내는 것이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고 '선'이다. 어렵지만 조금더 살펴보자.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여래를 본다

성철스님 열반송에 보면 스님은 평생 남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했다. 성철스님이 평생 주창한 선, 불교, 중도가 모두 거짓말이라면 올 겨울 우리가 성철스님 백일법문으로 논강을 했는데 거짓말 가지고 했는가?

그런데 성철스님은 열반송 마지막에 '붉은 해가 서쪽에 걸렸다'고 했다.

스님의 열반송 앞 구절은 존재원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마지막 구절은 존재원리의 한 단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중도를 체험한 분들이 중도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로 '달과 손가락', '멧목과 언덕'이 있다. 우리가 올겨울에 얘기한 것은 '손가락'과 '멧목'을 가지고 얘기했다. 선지식들은 '달'을 가지고 얘기한다.

'연기(緣起)'와 '중도(中道)'는 같은 것으로 '중도연기'는 존재원리를 말한다. 형상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써 존재하고 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내가 만들기 이전에 내 존재원리가 중도로 되어있고 연기로 되어있고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수행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중도, 연기,법,여래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 이외는 절대로 '닦는다' '증득한다' 이런말들을 용납하지 않는 종파가 '선'이다.

그래서 '선종'이야말로 부처님말씀을 철저히 계승해온 종파이다. 선은 '달'만 비유하지 '손가락'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원=이준엽 기자

자유토론 내용 요약

"중도는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


종합노론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는 스님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토론은 저녁 12시까지 6시간동안 계속됐다.

성철스님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에 관련해서는 '중도'에 대한 논의와 '교와 선의 관계정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백일법문은 처음부터 중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철 스님은 초기불교에서 선종불교까지 하나라고 하지만 실천과정의 중도와 도달목적지로써 중도가 다르다. 일부 중도론은 양변을 여인 것으로 표현하는데 경제적 불평등, 비구 비구니 이부승단의 불평등 등 양극단의 모순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불자의 생명은 언설초월한 '법'
"수행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자"

고우스님은 "중도를 이해하면 다 해결된다. 종단뿐 아니라 남북통일도 된다. 종단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패거리'이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중도뿐이다. 중도는 도깨비방망이이다. 지구상 모든 문제는 중도만 이해하면 안풀리는 것이 없다. 아울러 우리에게 문제는 언행일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를 이해하고 아는것만큼 이해하도록 해야겠다"며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가불자들에게서 가장먼저 대두된 것은 '최상승이라는 간화선만이 불교 수행인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수행법을 택해야하느냐'는 의문이었다.

이에대해 각묵스님은 "이것 저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싸움뿐이다. 불자들에게 생명은 법이다. 언설을 초월한 부처님법이 뭔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선우논강 대표선우 철오스님은 "논의를 통해 종단이나 수행풍토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돈오돈수가 어떻다는 그럴싸한 학문으로 바뀔 수 없다. 출가자는 수행자답게 살면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간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없이 이어지던 토론은 '불교가 현실에 어떻게 참여할것인가'로 초점이 모아졌다.

구미종합복지관 진오스님은 "사회현장에 있다보면 '수행자답지 않다' '너부터 잘하라'는 식의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접한다. 때로는 자비실천을 행하는 것이 출가자 답지 않게 보일수도 있다. 산속에서 참선 수행하는것도 존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중교화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토론 끝자락에서 성철스님 상좌로 <백일법문>을 출간한 원택스님은 "큰스님은 <선문정로>를 받아들고 첫마디가 '출가한 밥값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법을 받은적이 없고, 누구에게 인가받은적이 없으며 <선문정로>를 확실히 아는이가 법제자다고 말씀하셨다. 시봉하면서 보니 큰스님은 억지로 치열한 정진을 하시거나 일부러 공부하시지 않으셨다. 장좌불와와 같은 스님의 모습은 깨다음과 함께 저절로 따라온것이다"며 생전의 성철스님을 회고했다.

월암 스님 "투철한 청규 본받자"



성철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강조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의 백장청규 정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수행자의 일체 의례가 그대로 수행이 되게 하여 수행 그 자체가 그대로 삶이 되고, 삶 그대로가 깨어있음이 되는 "수오일여(修悟一如)"다. 둘째는 "선농겸수(禪農兼修)"로 불려지는 자급자족의 생산불교 지향. 오늘의 한국불교가 다음사항을 지향해야하겠다.

수행자체가 깨어 있는 삶

* 선교회통(禪敎會通): 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선은 암증선(暗證禪)이 될 것이며, 선의 실천이 없는 교는 문자법사(文字法師)의 오류에 빠질 것이다.
* 계선일치(戒禪一致): 성철선 역시 철저한 지계의 바탕위에서 수행(禪定)과 깨침(智慧)을 강조하고 있다.
* 해행상응(解行相應): 현재 한국선의 병폐는 수행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고, 깨달음과 실천이 병행하지 않는데 있다.
* 비지쌍운(悲智雙運): 이판은 사판의 자비를 인정하고, 사판은 이판의 지혜를 아울러서 이판과 사판이 모순의 대립을 지양하고 비지쌍운의 상생을 실현할 때 이판적 사판, 사판적 이판의 원융살림(認定의 문화)이 이루어질 것이다.
* 돈점겸수(頓漸兼修): 실천수행이 없는 돈점논쟁은 희론에 불과하다.
* 간화정종(看話正宗): 선종사에서 볼때 마지막 제기된 수행법이 간화선이다.

혜원 스님 "돈오선 강조한 뜻 점검을"



성철스님의 선수행은 사교입선(捨敎入禪)으로 고려말, 조선시대 선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했다고 봐야한다. 조계종의 종지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승가의 교육이다.

실참실수 지도점검 구비돼야

성철스님이 백일법문에서 극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돈오선'을 하자는 것이다. 돈오선에 어긋나는 선법이라면 지체없이 하지 말아야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철스님의 선수행관은 육조 조계선법을 벗어난 선법을 제시한것도 아니고 더구나 새로운 선법을 내세워 기존의 선법의 잘못되었음을 질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의 근본진리의 체득은 진성의 오수(悟修)이며 법성의 파악이며 선법으로서는 돈오선을 해야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선수행상에서 여러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통적으로 실천수행하고 있는 선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반성이기도 하다.

명안종사의 지도와 점검이 구비돼야 하며 대중 청규가 실천되어 사위의(四威儀)가 불행(佛行)되도록 선중(禪衆)은 서로 청규통한 공부를 시켜야한다. 성철스님의 <선문정로>가 백일법문에 나타나 있듯이 오늘날 선수행 문제점의 해결은 스님의 법문에서 발견되어진다고 본다.

세등 스님 "둘이 아닌 진리로 살아야"



성철스님의 사상은 이론과 실제,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닌 실천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불교수행은 주로 참선 및 명상수행을 말하며, 사회활동으로는 포교의 일환으로 일부 출·재가불자들이 교육 및 복지, 환경보호운동 등에 종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행·교육제도 개혁 필요

한국불교는 수행과 활동을 구분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출가자의 사회활동은 소극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 사회활동이 곧 자신을 비우는 적극적인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한국의 승가가 수행과 활동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풍토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제도와 교육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선객이 해제기간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자 포교사 및 사회활동가들이 안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수행과 활동의 경계가 지금처럼 양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승려의 기초교육기관인 강원, 승가대학에서는 '지혜와 자비',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개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리와 이타' '수행과 현실참여'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는 일이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접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위더스에서는 세계최초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영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로봇컴을 개발 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학생 및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 입니다. 스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영어 학습법으로 첫째 "청취력" 둘째 "따라하기" 셋째 "대화하기" 학습입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 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뉴지니컴은 명령에 따라 학습하며 1단계(Listcning mode)리스~닝 모드는 귀 뚫기 과정으로 영어를 많이 들어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하여 "청취력"이 향상되며 2단계(Excercise mode)엑써~싸이즈는 입을 열어주는 과정으로 영어를 한문장씩 듣고 따라하며 스님께서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수정해주며 잘하면 엑설런트하며 칭찬합니다. 3단계(Dialoguc mode)다이얼~로그는 스님께서 뉴지니컴과 한문장씩 1:1로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영어 학습 기능모드가 다양하게 많은 뉴지니컴은 영어선생이자 미국인 친구와 같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스님께서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외국연수를 방불케 하는 생생한 영어학습을 실천할 수 있으며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인 포교의 세상이 열립니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경봉 스님(1892~1982): 경남 밀양 生. 통도사에서 성해 스님 은사로 득도. 대교과 마치고 제방선원에서 안거. "야반삼경에 대문빗장을 만져 보아라"는 말씀 남기고 원적.

네티즌 교리문답

'평상심'은 어떤 마음?

문 평상심이란 어떤 마음인가요? 중생심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ID '초보자')

답 1 :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평온하면 평상심에 가까운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희노애락'에 휩쓸리면 중생심에 가까운 것이 아닐런지요.(ID '초보자2')

답 2 : '평상심이 곧 도(道)'라고 한 마조 선사는 '조작과 시비,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성(凡聖)이란 분별이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흐름에 맡겨 일체의 작위가 없는 평상심은 곧 '본래의 마음'으로서, 경계에 휘둘리는 중생심과는 다릅니다. (ID '푸른바다')

답 3 : 평상심은 의심이 없는 중생심이요, 중생심은 의심이 있는 평상심입니다. 평상심과 중생심에 차이는 오직 의심의 있고 없음의 차이와 같습니다.(ID '김명상')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㉘

불립문자(不立文字)-1

말과 문자 버려야 분별·집착 떠난다

이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대목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불립문자는 직역하자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인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함은 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여기에서 문자라고 한 것은 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불교문헌에 보면 흔히 둘을 붙여서 '언어문자'라고 하여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면 말과 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함은 무슨 뜻일까? 말이고 글이고 간에 도무지 믿을 것이 못되므로 글을 전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겠다거나, 말을 전혀 안 하고 듣지도 말고 살아야 한다거나, 글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뜻일까? 단단히 작심을 한다면 말과 글을 전혀 안 하고 안 쓰고 살 수도 있긴 있을 터이다. 실제로 스님들이 묵언수행(默言修行)을 하는 예도 종종 본다.

그러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기는 깊고 깊은 산속에서 평생 혼자서만 산다면야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터이다. 아마 선의 종지에 극단적으로 충실하고자 실제로 그렇게 살다간 이들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으며 불교의 역사에서도 기억되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부처님이라면 중생과 함께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교리이다.

언어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언어문자를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전하는 일에서는 언어문자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거기에 의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중생의 망상망념을 쓸어버리고 그것에 가려있던 부처님으로서의 본래 정체를 발현하는 것이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 보면 무심(無心) 무념(無念) 무주(無住)를 선의 종지로 삼는다고 했는데, 망령된 마음과 생각이 없고 그런 마음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망령된 마음과 생각이 없으며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의 방식으로 마음을 쓰고 생각을 일으키고는 그것을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방식으로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선종에서는 망상망념을 한 마디로 분별이라고 일컫는다. 분별이 중생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이라는 얘기이다. 분별이란 개체를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체를 구별하기만 하고 그것들이 서로 불이적(不二的)인, 연기적(緣起的)인 관계 속에 있다는 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언어문자는 워낙 그 속성과 기능의 핵심이 분별에 있다. 분별하는 의식과 판단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한편으로는 분별 의식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언어문자이다.

하기는,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별부터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물을 분별하는 데에는 곧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이름 붙이기가 함께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말을 가져다가 붙인다는 것은 곧 분별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하면 나무가 아닌 것들과 나무를 분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인간의 정신 작용인데, 이것을 두고 왜 선종에서는 그리도 심각하게 문제를 삼을까?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4>

적정음해 주야신의 법문

"모든 중생을 여래의 경계로 인도"

바다같은 지혜로 설법 … 환희 심어줘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고요한 음성바다(寂靜音海) 주야신'이다. 주야신을 찾아가 예배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묻자, 그 주야신은 자기는 '보살의 생각생각마다 광대한 기쁨을 내는 장엄해탈문(念念出生廣大歡喜莊嚴解脫門)'을 얻었다고 하였다.

선재동자가 그 해탈문은 무슨 사업을 지으며, 무슨 경계를 행하며, 무슨 방편을 일으키며, 무슨 관찰을 하는 것인지를 묻자, 주야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나서 구호하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아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보살의 청정한 서원의 힘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큰 지혜의 광명바다에 머무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중생이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다. 나는 모든 중생이 여래의 위없는 법의 즐거움을 성취케 하려는 마음을 내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다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온갖 지혜의 지위에 이르게 하니, 어떤 중생이 경계에 물듦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또한 어떤 중생이 성내는 일이 많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참는 바라밀다에 머물게 한다. 어떤 중생이 게으름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청정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바라밀다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의 마음이 산란함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여래의 선정바라밀다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 지혜가 없음을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반야바라밀다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 저를 이롭게 하는 행에 머무른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소원을 내게 한다. 어떤 중생의 마음이 교만한 이를 보면 나는 그에게 평등한 법의 지혜를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한량 없는 법보시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되 갖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켜 나쁜 길을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의 낙을 받게 하며 삼계의 속박을 벗어나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고는, 그때에 나는 엄청난 즐거움과 법의 광명바다를 얻고 마음이 화창하여 편안하고 희열하는 것이다.

또한 선남자여, 나는 모든 도량에 모인 보살대중을 항상 관찰하여 그들이 갖가지 원과 행을 닦으며, 갖가지 깨끗한 몸을 나투며, 갖가지 항상한 광명이 있으며, 갖가지 광명을 놓으며, 갖가지 방편으로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가며, 갖가지 삼매에 들어 갖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며, 갖가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며, 갖가지 장엄한 자리에 앉았음을 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도량에 모인 대중을 이와 같이 관찰하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한량없고 그지 없음을 알고 크게 환희한다. 선남자여, 나는 비로자나 여래께서 잠깐잠깐마다 부사의하게 청정한 몸을 나타내심을 관찰하나니 이것을 보고는 크게 환희한다. 또한 여래께서 잠깐잠깐마다 큰 광명을 놓아 법계에 가득함을 관찰하나니 이것을 보고는 크게 환희한다. 또한 여래께서 낱낱 털구멍에서 잠간잠깐마다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수 광명바다를 내는데, 낱낱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수 광명을 권속을 삼고, 낱낱이 모든 법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시킴을 관찰하나니 이것을 보고는 크게 환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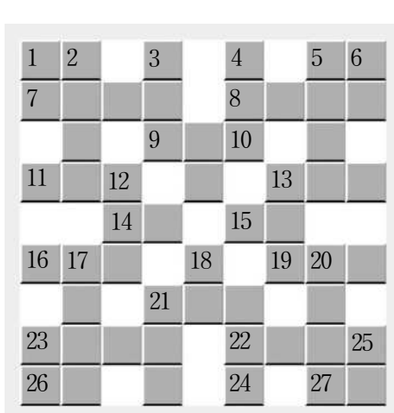
나는 이것을 보고는 잠깐잠깐 동안에 매우 환희함을 내고 매우 믿고 좋아함을 내었으니, 예전에 얻지 못한 것을 지금 얻었고,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았고,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지금 듣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법계의 모양을 능히 분명하게 아는 까닭이며, 온갖 법이 오직 한 모양임을 아는 까닭이며, 삼세(三世)의 도에 평등하게 들어간 까닭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이 생각생각마다 크게 기뻐하는 장엄을 내는 해탈의 광명바다에 들어갔다."

주야신의 명칭이 '고요한 음성바다[寂靜音海]'인 것은 세속으로 들어가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고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선정(禪定)에 바탕을 둔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다처럼 광대함을 나타낸 것이다.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발심과 설법에 의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교화하는 것에 한없는 환희를 느끼고, 여래와 보살의 거룩한 덕을 관찰함으로써 예전에 보고 듣고 얻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얻게 됨으로써 불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 생각 생각마다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도(道)를 체득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의 거룩한 경계를 관찰하고, 그것에 공감하여 그 법을 받들어서 그 자신도 중생교화에 매진하려고 하는 생각생각마다 일으키게 되는 기쁨이야말로 바로 해탈의 경지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을 실천함이 없이 부처님 법을 어렵기만 하다고 넋빠진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19면에

가로 1. 입으로 전해 내려옴 5. 재화를 획득, 이용하는 활동 7.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 8.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린 시대를 통칭함 9.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명청시대의 궁전 11. 중생의 선악의 업을 비추는 거울 13. 도리에 맞지 않음 14. 사람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 15. 물자와 재료 16. 종립 중고등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님 19. 나라의 일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21. 이름을 지어 붙이는 의식 23. 왕조시대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외의 모든 벼슬아치를 통칭하는 말 24. 물래 장가를 가는 것 26.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길 27.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됨.

세로 1. 음력 설의 다른 이름 2. 후한의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사정제를 3번 설한 경(轉法輪經) 3. 스님이 설법할 때 가지는 지팡이 4.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 5. 대수롭지 않게 여기 추세 6. 현역 군인의 복무해제를 뜻함 10.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의 이자 12.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 13. 그 자리에 없는 사람 17. 부처님께서 설하신 묘법, 법사리라고도 함 18. 법명 20. 컴퓨터에서 CPU를 제외한 여러 장치 21. 지장보살과 십왕을 모신 전각 22.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락으로 삼는 사람을 지칭 23.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한 가지 25. 옳음과 그름.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新공간서 信나는 역사 창조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자, 시대를 담는다고 했다. 지난 2002년 4월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단순히 새 집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기엔 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자리 잡게 된다. 2004년 오늘, 이제 한국불교는 새 옷을 갈아입고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됐다. 1월 27일 입주가 시작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1월 15일 미리 둘러 보았다.



1층은 원기둥과 전통 창살문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법당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정면(천으로 가려진 부분)에는 서산 마애삼존불을 본뜬 청동조형물이 설치된다.



사무실은 기능과 전통미를 함께 고려했다.



인공위성과 LAN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산실.



종단 중요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무한보존서고.

입주 시작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이번에 1차로 완공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대지 1,375평, 연면적 5,085평, 대지 694평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현대식 건물이지만 내부는 오히려 전통 한옥 양식에 가깝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특징은 단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외양은 현대식이지만 내부는 전통 한옥 양식을 차용했다. 여기에 불교적 조형미를 가미해 은은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선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민흘림의 원기둥이 사방을 지탱하고 있고, 이 원기둥을 축으로 전통 창살문이 2 · 3층을 에워싸고 있어 마치 법당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천장에 수놓아진 연꽃무늬 장식은 은은한 멋을 더했으며, 엘리베이터에도 비천상을 수놓아 건물의 성격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백미는 모든 출입객들을 맞게 될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애삼존불상.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눈에 들어오도록 배치될 계획인 마애삼존불상은 가로 4.5m, 세로3.6m 크기로, 서산마애삼존불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청동으로 조성됐지만 석재 재질의 느낌이 나도록 해 원형 그대로의 느낌을 갖도록 했다. 현재 조성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이면 온화한 자태를 볼 수 있게 된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쪽에는 중앙기록관실과 도서실, 무한보존서고, 전산실이 위치해 있다. 무한보존서고는 2만권 규모의 종단 자료(교육, 포교, 종회 등 각종 문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로, 항온 항습장치와 특수 소방시설까지 갖췄다. 전산실은 유무선 LAN 시스템과 인공위성을 통해 종단의 행사를 전국에 생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도서실은 일반에 개방되는데, 이곳에서는 종단 자료 이외에 각종 일반 간행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비천상 문양의 엘리베이터.

지하 4층·지상 4층 전통 한옥양식
지하 1층에 불교박물관…연말 완공

행정공간으로 사용되는 2 · 3 · 4층의 사무실 내부 역시 창문을 전통 창살문으로 하는 등 전통미를 최대한 고려했다. 특히 총무원장 집무실이 위치하는 4층 복도는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회의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고풍스런 내부장식으로 전통미를 살렸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중앙박물관이 나온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돼 시공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세부 건립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불교중앙박물관에는 지방 사찰에 산재한 여러 불교유물과 정부로부터 반환받은 불교유물 등이 전시된다. 역사문화기념관이 불교문화종합공간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는데 중앙박물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박물관은 별관공사가 끝나는 올해 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포교 · 교육 · 행정 중심… '총본산 기능'
불교 숨쉬는 문화벨트, '새명소' 기대

지하 2층에는 식당과 행사기획단 및 출판사 등의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직 내장 작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무공간과 마찬가지로 전통미를 최대한 살리게 된다.

지하 3층에서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기능을 보좌하면서 유물을 보관하게 될 수장고를 볼 수 있는데, 석재, 지류 · 목재류, 기타 등 유물 분류별로 마련돼 있다. 유물보존처리실도 따로 공간을 마련해놓았다.

지하 4층은 유한보존서고, 비밀서고 외에 체력단련실과 전기실 등 건물 전체를 통제하는 시설이 들어서있다. 유한보존서고는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는 종단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문화기념관은 포교,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불교의 대사회적 기능을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불교문화종합공간이자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데 묶는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계종의 구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청사 시대를 열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종단사태 등 오욕으로 점철된 현 총무원 청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아울러 행정기능에만 머물러 있던 데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국제회의장이 들어설 별관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조계사가 진행중인 우정총국과 연계한 공원화 작업이 완료되면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인사동과 우정총국을 잇는 시민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회의실은 최첨단 장비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1층 도서관.



건물 전체의 동력을 제어하는 기계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오른쪽)과 2월중 해체될 현 총무원청사(왼쪽)

▮ 현 총무원 청사 2월중 해체

1975년 조계사 대웅전 옆에 '불교중앙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출범한 현 조계종 총무원 청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완공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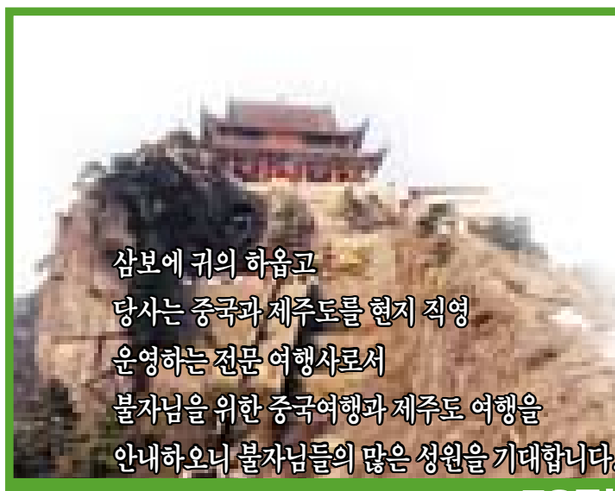
총무원이 이달 말까지 새청사(역사문화기념관)로 입주를 끝내면 2월 중순경 현 총무원 청사의 해체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자리에 국제회의장을 갖춘 역사문화기념관 별관이 들어선다.

종권다툼, '10·27 법난' 등 오욕현장
국제회의장 갖춘 별관 건립 예정

현 총무원 청사의 해체는 곧 불교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 현 총무원 청사는 30년 역사 동안 불교 분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지난 1994년과 1998년 종권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빚어졌을 당시의 현장이 바로 지금의 총무원 청사다. 총무원 청사를 무력 점거하고, 종권을 쟁탈하려는 '전투' 속에서 화재를 입는 등 만신창이가 됐고, 청사를 배경으로 한 폭력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에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됐다.

또 1980년에는 신군부에 의해 불교의 자주권이 침탈당하는 '10 · 27 법난'의 아픔을 겪기도 했으며, 크고 작은 점거사태에 시달려왔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20-8489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2, 3월 특선 중국문화 탐방
▷ 태산 크루즈 + 역사탐방 7일 399,000원
▷ 상해 / 장가계 / 소주 6일 699,000원
▷ 북경 / 백두산 6일 799,000원

〈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4>



붓다의 자유로운 탐구정신

불교를 철학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서양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접근하였을 때 유럽의 불교학자들 중에는 불교를 철학 내지 사상으로 이해하였다. 서구의 위대한 철학자 야스퍼스 등은 불교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연구하였으며 가톨릭 신부인 라모트와 같은 위대한 불교학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불교를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철학 내지 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교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물론 불교는 단순히 철학이 아니다. 그렇다고 종교도 아니다. 불교는 종교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요소를 모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선 불교를 철학으로 이해하였던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경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철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사색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철학은 일반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통이나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먼 과거로부터 진실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사상이나 신앙 대상에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철학이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은 단지 기존의 가치체계나 사상체계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념체계를 자유롭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끊임없는 질문과 검토를 통해 진실과 허위를 판별해 내자는 것이다. 철학의 이런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 붓다의 가르침의 주요한 흐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교를 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맛지마 니카야의 우팔리 경전(Up?li-Sutta)에선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우팔리(Up?li)는 자이나교의 유력한 신자였는데 붓다와의 대론을 통해 불교에 귀의한다. 신업, 구업, 의업 삼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두고 우팔리는 붓다와 대론을 벌였다. 자이나교는 신업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붓다는 의업을 가장 중시하였다. 대론 끝에 우팔리는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붓다에게 자신을 재가신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한다. 붓다는 그의 개종 의사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재가자여! 철저히 조사하라. 그대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에 우팔리는 더욱 감동 받고 재차 불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소식을 접한 자이나교 교주는 우팔리를 찾아 그의 개종 여부를 확인한다. 대화 중 우팔리는 붓다의 가르침과 자이나교의 가르침의 특성을 비교한다. "어리석은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현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테스트나 조사에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은 현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테스트나 조사에 견딜 수 있다." 우팔리는 비유로 비교한다. 원숭이를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으로 염색할 수 있지만 두들겨서 평평하게 할 수 없듯이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도 그와 같다. 두들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이다. 원숭이를 몽둥이로 두들기면 죽듯이 니간타 나타풋타의 가르침도 질문해 보면 결국 허위로 판명된다. 웃감은 염색도 할 수 있고 두들겨 평평하게 할 수 있듯이 붓다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 자유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서는 안되고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붓다는 연기의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는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와 같이 알고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겠는가? '우리의 스승은 존경할 만한 분이니 우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와 같이 말한다' 고."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단지 위대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적 요소 모두 갖춘 불교
"비판하고 스스로 검증하라" 가르쳐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적인 이성은 불교를 떠받치는 토대이다. 이런 토대를 무시하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 중심의 종교와는 달리 불교의 진리관은 신앙보다는 지혜를 강조한다. 믿음 중심의 종교의 교리 즉 도그마는 신앙을 전제로 하는 교설이다. 검토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독단적이다. 반면에 붓다의 가르침은 비판적 검토나 사색을 중시한다. 따라서 불교에는 다양한 교리가 전개되고 발달되었다. 불교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경전과 논서가 제작되어 새로운 시대 상황과 문화에 부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성경이 닫혀진 데 비해 불전(佛典)은 개방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열린 자세는 경직된 교주주의(dogmatism)나 권위주의를 막아 준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한다 안한다' 마음 버리고 평상심으로 살라



지상 백고좌
묵산스님
(보림사 주지)

서울 정릉의 삼각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림사. 도심 속의 재가선원으로서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 거사의 제자들이 만든 참선단체 보림회의 근본도량이다. 이 곳에는 백봉 거사와 도반으로서 출·재가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는 묵산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1월 15일, 1년만에 찾아뵙는 묵산 스님은 82세의 세수에도 여전히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기자를 맞이한다.

"현대불교 지상 백고좌에 좋은 법문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중생들에게는 감로수가 되어야 하고, 불교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는 기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매번 찾아뵐 때마다 불교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일깨우는 묵산 스님. 스님은 "불교는 상대성이 아닌 절대성을 강조하는 종교"라며 "스님들이 기복불교를 자제하고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못된 신행의 폐해를 알고 고쳐나가는 일이 지중하다고 말하는 묵산 스님은 지난해 말 큰스님들의 잇단 열반으로 불자들이 의지할 곳을 잃은 데 대해 무척이나 안타까워 했다.

"이제 젊은 스님들이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해요. 정진도 제대로 안하고 금강경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은 알음알이를 내는 차원일 뿐입니다. 불법은 문자를 떠난 자리예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참선하지 않고는 생사해탈이 어려운 거죠."

묵산 스님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저서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는 책 제목을 예로 들며, '백척간두'의 앞소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육조 스님의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도리를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은 문자를 떠난 자리
안목 안 열리면 볼 수 없고
참선하지 않고는
생사해탈 어려워



묵산 스님

1922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했으며 46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과 효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65년부터 백봉 김기추 거사를 만나 함께 공부했다. 37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토요일마다 백봉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회원들의 참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자리는 삼세제불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리요 입이나 생각으로는 붙일 수 없는 곳이요, 금강경 등 온갖 경이 나오는 당처입니다. 육조 스님의 최상승 도리를 등지고서야 어찌 자성부처를 찾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걸식하시면서 이 집, 저 집에서 하신 설법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자리를 찾으라'는 것. 몸과 분리될 수 없는 마음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생로병사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면서도 잊고 사는 그것이 아니던가. 마치 새가 허공에 살면서 허공을 인식하지 못하듯,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을 잊고 살듯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약 35년전, 강원도의 한 토굴에서 정진하던 중 허공이 부서지는 체험을 했다는 묵산 스님.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나의 몸'임을 깨달았던 그 때의 경계다.

면목 없는 자가 근본이라(無面目者是本然)/ 두두 물물이 이리 좇아 왔다(頭頭物物從此來)/ 추월, 춘화를 그대는 아는가(秋月春花君知否)/ 돌여인 젓대 부는데, 목인이 춤추더라(石女吹笛木人舞).



"마음자리를 항상 관하고 분별심 없이 살라"고 당부하는 묵산 스님.

묵산 스님이 이 때 체험한 허공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허공이 아닌, 진공(眞空) 자리였다고 한다. "천당과 지옥이 부서지고, 불보살이 다 부서졌어요. 생사 거래와 남녀노소, 일체의 차별이 다 무너졌지요. 눈, 귀, 코, 온통 몸뚱이가 다 허공이 되었어요. 내가 화엄경이 되고 법화경, 열반경,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이 되었습니다. 마음자리하나 잡아놓으면 팔만대장경이 날 떠날 수 없어요. 말쑥하게 빈 청정법신(淸淨法身)의 자리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일체 행동이 여래선이요, 조사선인 자리입니다."

묵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우리 본성을 '허공'에 비유해 설법하지만, 이 '진공'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부처자리인 마음을 자유자재로 씀으로써, 텅 비어있지만 묘하게 작용하는 '진공묘유(眞空妙有)'와 하나되어 살라는 것이다. 이른 바 절대성(絶對性)으로 상대성(相對性)을 굴리고, 체로써 용을 굴리며 사는 자유인이 되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선과 악, 보리와 번뇌, 부처와 중생,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이러한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묵산 스님은 "보는 놈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상대(경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내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다면 대상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본성자리에서 볼 때 생과 사는 바다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며, 허공에 구름이 가렸다 사라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치를 알아 정법을 세우고 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깨닫고 난 후에는 경허 선사처럼 선악을 자유자재로 굴리고 쓸 수 있지만, 중생의 사표가 되려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와 절제된 행동규범이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말이다.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凡所有相 皆是虛妄)' 이치와 '오







보림회의 매 주말 철야정진을 지도 해온 묵산스님은 찾아오는 출 · 재가 선객들에게 '선의 요체'를 자상하게 일러준다.

자기 본성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대상과 둘이 아님 알게 돼

온이 모두 공함(五蘊皆)'을 알아 진공과 허공이 둘이 아닌 자리를 체득해야 안목이 열린다는 것이다. 즉 '마하반야'가 바로 허공을 걷어잡은 소리인 것이다.

"이 평등한 성품, 즉 대원경지(大圓鏡智)에서는 피차(彼此)와 친소(親疎)가 없습니다. 부처님(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자기 동반자를 모르고 사니, 관음, 문수, 보현보살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상주일체(常住一切)의 존재임을 모릅니다."

묵산 스님에 따르면, 이 마음은 '천지인 삼재의 주인이자 만법의 왕'(主於三才 王於萬法)이다. 허공은 말이 없지만 춘하추동을 만들어 내듯이 마음은 만법을 굴리는 주인공인 것이다.

"마음이란 본래 빈 자리입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사량분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첫걸음에 진공(眞空)을 얻은 후 내 바탕 위에서 묘유(妙有)를 굴리는 것입니다. 유(有)에서 무(無)로, 무에서 다시 유로 나아가되 유무를 초월해서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산 스님은 "우리가 정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주체성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며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을 항상 관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반야심경을 들으면 내가 반야심경이 돼서 행동하고, 금강경을 들으면 내가 금강경이 되어 생활해야 한다. 화두 들고 있는 이 놈이 무엇인가? 절하고, 운전하고, 책읽는 이 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묵산 스님은 선에서 부처와 극락이 나왔기에, 불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禪)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24시간 도(道) 안에서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고 그것과 하나되어 평상심으로 살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도 법문을 마친다.

글=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묵산 스님이 말하는 '참선'

묵산 스님은 최근 위빠사나에 대한 관심 고조와 창가학회 등 일본 불교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며, 정통 선에 대한 쉼없는 탁마를 당부했다.

"참선을 해야만 크게 깨칠 수 있다"는 묵산 스님은 "깨닫기 위한 요체는 하얀 백지장처럼 일체를 방하착(放下着)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에 본래 없던 내가 어디 있었는가를 절실히 참구해서, 온갖 분별심일랑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

"마음을 쉬고 비우는 방하착 공부를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걸식할 수 있는 대발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부자였던 중국의 방거사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깨달았듯이 무집착, 무소유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인들은 '일체를 방하착하면 본심은 드러나고 자재하여 법왕궁(法王宮)에 노닐게 된다'고 했어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정도여서는 안됩니다. '백척간두' 조차 버려야 합니다."

비우고 쉬는 방하착이 요체 무집착 · 무소유 실천해야

묵산 스님은 "선이란 공(空)이며 부처이며 도(道)"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근본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설한다. 달마대사가 '관심일법(觀心一法)이 총섭제행(摠攝諸行)'이라 했듯이, 마음 하나만 관하면 모든 행동이 그 속에 다 포괄된다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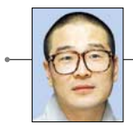
"가령 우리가 마음을 관하면 모든 문제가 다 쉬어버립니다. 물 위에서 파도가 일듯이, 그 마음 바탕에서 좋은 생각도 내고 남을 해롭게 할 생각도 내고, 온갖 사심도 일어나고 온갖 욕심도 일어납니다. 마음 하나를 집중해서 관하면 어지러운 경계가 다 사라지지요."

묵산 스님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몸과 생각을 움직이는 본성을 관하되, 육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비우고 또 비우는 공부를 지어가길 당부한다. '넓고 크게 두려움 없이 고요하게 본성자리에 비추어보라(蕩蕩無畏 寂而照 照而寂)'는 말이다.

그러나 해탈한 자에게는 정진이니, 인욕이니 하는 말이 더이상 필요 없다. 화두, 염불, 절, 독경은 방편일 뿐이기 때문이다. 땀지가 떨어진 격외장부(格外丈夫)에게는 수행법이랄 게 붙을 수 없다. 스님이 해말쑥한 성품자리에서 분별심을 버리고 '절대성으로 상대성을 굴리며 살라'고 말하는 이유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탄성 스님



절 집에 살다보면 전통적인 수행법을 벗어나 사는 스님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다. 참선이나 염불 그리고 간경과는 거리가 먼, 등산이나 여행이나 노래를 수행삼아 사는 스님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멋이 있고 타인에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수행과 구세대비의 자비심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에 귀 기울여 보면 대단히 감성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가슴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탄성 스님 역시 가슴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할 만하다. 그는 대단한 산악인이다. 쌍계사 강원에 있던 시절, 그는 틈만 나면 자일을 메고 전국의 바위산을 찾아 떠돌아 다녔다. 조금 큰 키에 마른 편이지만 암벽 등반을 해서 그런지 그에게서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팔뚝과 다리의 근육, 그리고 배에 그려지는 근육은, 그의 등반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림 · 문병성

어느 해 겨울이다. 그가 쌍계사 강원에 있던 시절이니까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쌍계사에서 한 시간 쯤 걸어 올라가면 불일폭포가 있다.

그 폭포는 겨울이면 얼어 아주 멋진 빙벽을 이룬다. 그래서 겨울이면 빙벽등반을 하러 사람들이 더러 온다. 그도 겨울이면 이곳에 와 빙벽등반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얼음이 깨어지면서 스님이 낙상을 하고야 말았다. 빙벽에서 떨어져 다시 얼음판에 추락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불 · 보살님의 가피 덕분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는 골절상으로 인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가 다시는 암벽이나 빙벽등반은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고 좀 지나서 다시 암벽등반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의외로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죽고 사는 것도 다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니 아무래도 죽지는 않을 인연인가 봐요."

나는 그의 무쇠 심장이 부럽기도 했지만 생사에 초연한 그의 넓은 마음자리가 더 부러웠다.

얼마 전 나는 그의 토굴을 방문했다. 흙으로 지은 십여 평 되는 토굴은 아주 깔끔했다. 방에 들어서니 난로에서 향긋한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알프스 등정할 때의 사진과 강원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알프스 등정 사진은 그가 혼자 찍은 것들이라고 했다. 네 명이 함께 알프스 등정의 장도에 올랐지만 다른 세 명은 다치거나 중도에서 포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찍은 사진 몇 장은 암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손을 찍은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사진의 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손만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서야 비로소 사진 속의 손이 그의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등정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 정상에 선 사내의 심정과 왜 목숨을 건 등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자기실현이라고.

가슴으로 수행하는 산악인이자 목수

"등산을 하는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게 산에 오른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며 삶에 애착을 튀어 넘는 것이며 나라는 경계를 해체하는 수행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과정이듯이 산에 오르는 일 또한 내게는 과정으로 지나갈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그는 그 이후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선방에 다니며 마음의 산을 오르고자 노력했다. 마음의 산은 눈보라 치는 알프스 정상 보다 오르기 더 힘든 것이라는 그의 말이 큰 공명을 남겼다. 마음의 산을 오르다 그는 잠시 쉬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 선방에 들지 않았다. 대신 해제 철에 배운 목수 일에 열심이다.

강원도 안흥에 있는 통나무 학교에서 집짓기를 배우고 제일 먼저 그 토굴에 잇대어 창고를 하나 지었다. 처음 지어 본 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창고는 훌륭했다. 그 창고 안에 그는 목수 도구와 등산장비를 구비해 놓았다. 요즘은 다시 10평짜리 통나무집을 짓고 있다.

산에 가면 산에 어울리고, 목수 일을 하면 목수 일이 천직인 것 같은 스님이지만 그는 새벽이면 일어나 좌선하고 하루 일을 마치면 다시 선정에 드는 철저한 수행자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선(禪)일 수 있어서 좋은 사람. 길을 가다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되어 놀고, 노인을 만나면 말벗이 되어 머무는 넉넉한 사람이 탄성 스님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를 희망하는 학인들을 위한 **나란다삼장불학원**,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는 **불교예술대학**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모집기간	수시모집	수시모집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모집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약간명
수업연한	2년(4학기)	경,율,론 각과정 1년	사미과, 사집과,사교과, 대교과 각과정별 6개월	기초, 중등, 고등, 대학 각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매주 1일 수업	매주 1일 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하시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포교원 운영하실 분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 시	수 시	2004년 3월 3일까지	수 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전법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법사,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2004년 국제수계 참가자격부여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기숙사 입사 희망자 집중수련	우수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 수여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스님, 남진각스님, 김진궐교수님, 이지행교수님, 김익순교수님,서무선박사님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학장 활안(한정섭),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예술대학장 남진각

문의처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베개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가정용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색향미 한마음 차명상

최근 차인(茶人)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차 마시는 일이 그야말로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고 있다. 하지만 차에 대한 관심이 건강이나 취미활동이라는 측면에 더 치중된 탓인지,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대표되는 '차 수행'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찻잔 속에 달이 뜨네〉라는 책과 남양주 봉인사의 '차 수행 강좌' 등을 통해 차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는 지운 스님에게, 차 수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지난 1월 16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만난 지운 스님(맨 왼쪽)은 "차맛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지운 스님의 차 수행법

색 맑고 투명한 마음 떠올리기
향 차향기로 오염된 몸 정화
미 맛 생기고 사라짐 깨닫기

▶차 수행은 왜 필요한가?

"차를 마실 때 단순히 차 마시는 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차와 차맛 그리고 이를 헤아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펴서 어리석음과 욕심, 성냄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삶을 지혜와 보시, 자비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배워 익힌다면 이는 훌륭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봉인사 차 수행강좌에서 만난 지운 스님은 "요즘 차가 당뇨와 암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물론 치유의 효과는 있겠지만, 수행이 병행될 때 비로소 차를 마시는 그대로 생명살림이 된다"고 말한다. 즉 차를 마신다는 행위와 맛에 대한 집중은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막힌 곳을 소통시키므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자신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맛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차맛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자연스레 연결되어 생활 속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차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은, 혀와 맛이 만나는 세계를 여실히 알아차림으로써 차맛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놓치지 않게 되는 이치를 바탕으로 한다. 지운 스님의 차 명상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말과 생각을 떠나 선(禪)의 상태로 들어가는 '색향미(色香味) 한마음(一心)차 명상'으로 시작된다.

우선 차를 마시기 전에 찻물의 색깔을 주시한다. 맑고 투명한 차의 빛깔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맑고 투명하다고 명상한다. 찻물을 보며 먼저 작은 연못을 연상한 후 나아가 잔잔한 호수를 연상하다가 다시 넓은 바다를 연상하며 마음을 무한히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좁은 마음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며 작은 일에 매이지 않고 관대해지게 된다.

다음은 차의 향기를 이용한 명상. 맑고 향기로운 차 향기를 자신의 마음에 대입해본다. 코와 입안에 차 향기가 가득함을 연상하고 점점 확대해 온 몸 안에 차 향기가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향기를 투과시킨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 술 냄새, 음식냄새 등을 정화한다.

그 다음은 차 맛의 변화를 주시하는 단계다. 이는 차 맛의 처음과 중간, 끝을 관찰하는 것으로 차 맛이 생기는 순간순간 맛이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하며 차 맛의 고유한 어떤 실체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색향미의 차 성품을 통해 진흙에서 피는 연꽃처럼 마음을 정화하여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한마음차 수행법'의 시작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Q&A



▲차맛을 알아차리기 위해 적은 양을 입에 넣어 혀로 돌려가면서 맛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로 느끼는 맛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맛이 변화하더라도 그 속에서 최초에 느낀 맛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차의 첫맛을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까?

–차의 첫맛의 감지는 차맛을 보고자하는 의식을 한 곳에 집중시킨 정념(正念)으로 합니다. 정념은 빈 마음으로 일체 현상을 여실하게 지켜보는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맛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나아가 일체현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하면 자기 생각 따라 차맛을 느끼므로 관념적입니다.

▲차맛의 본성을 깨달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차맛을 싫다고 하여 성내는 것은 차맛을 자아(自我)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맛의 본성을 깨달으면 이러한 것이 모두 사라져 차맛이라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연히 차맛에 집착해 일어나는 괴로움에서도 벗어납니다. 때문에 차맛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마시는 양은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몸 상태, 그 때의 분위기, 기분, 상황에 따라서 마시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의 양이 아니라 맛에 대한 요점을 잡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차를 마실 경우, 자기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차를 마시고, 맛을 느낄 때에는 맛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시할 수 있는 관찰입니다.

하동 차축제 세계 행사로



기획단 구성
외국 관광객 유치
힘 쏟기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올해부터 세계적인 문화, 관광축제로 거듭난다.

하동녹차축제추진위는 지난 1월 14일 하동군청에서 심의회를 열고 일본이나 중국 등의 차 관계자 및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축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군민과 전국의 차 관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차 축제의 성격에 맞는 단위행사를 선정,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차 문화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제9회 하동야생차 문화 축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차 시배지 일원과 진교면 찻사발 도요지에서 개최키로 하고 예산규모는 3억3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정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그동안 녹차 시배지의 의미를 기리는 기념 제례, 햇차 무료 시음회,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매년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 모집합니다 】

'티월드 페스티벌' 참가 모집



국제차문화대전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04 티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성 퓨전차를 생산하는 업체나 차 관련 식음료 · 생활용품 개발업체, 차 재배농가, 다기 및 각종 차생활용품 제조업체, 단체 및 동호회 및 교육기관 등이면 참가 가능하다.(02)6000-8000

다도대학원 수강생 모집

한국차인연합회 부설 한국다도대학원이 제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차 생활 경력 5년 이상으로 차인연합회 단위차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원서 교부는 2월 중순까지이며 입학지원서, 다신서약서, 추천장 각 1통씩과 사진(반명함판) 3매를 제출해야 한다.(02)734-5866

동산불교대 다도학과 모집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불교 다인양성을 위한 다도학과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9일 개강 예정인 다도학과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문화사와 제다학, 다구학, 차식물학, 사찰다도법, 차품평학 등을 배우게 된다. 지원자격은 다도로 심신수행과 불교포교를 희망하는 자로 입학원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를 제출해야 한다.(02)732-1206

예지원 다도반 수강생 모집

(사)예지원이 3월 4일부터 개강하는 다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02)2253-2211~2

티테라피 수강생 모집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www.smkf.com)은 차를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티 테라피(Tea Therapy)' 지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차와 명상, 아름다운 차 공간 연출, 차를 이용한 요리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2월 4일 개강하는 기초과정은 12주간, 5일 개강하는 심화과정은 15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각각 48만원, 60만원.(02)710-9767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출강 · 통신)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양성을 위한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지도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섭화중생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충만한
법사(法師)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 출강반 ❷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6. 교육장소 : ❶ 서울 본 대학 ❷ 부산 학습 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4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가능)
※ 전화문의 하시면 모집 요강과 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권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 품수와 법사법위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정상구 (청주시 주성동)

해회처(解悔處) 가는 길 <하>

동생 경영하던 주유소 인수해 새출발
어머니 산소까지 경매…눈물의 세월
'마음까지 닦아 드리는 세차' 희망 찾아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된 집안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동생이 경영하던 주유소에서 새롭게 출발한 내게 있어, 사회는 더 이상 순탄하던 직장인 시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소문으로 안 이들은 내가 그 어떤 부탁이라도 해 올까 하는 염려에서인지 수화기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멀고 작아져 갔습니다. 연일 찾아오는 채권자들과 원금 기준의 해법을 놓고 때로는 아귀다툼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며 해결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점점 힘에 부쳐가더니, 끝내는 어머님의 산소까지 경매로 넘어가 이를 다시 찾아오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농사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동생과 함께 두타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인 영수사엘 갔습니다.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하룻밤을 산사에 머문 우리 형제는, 이튿날 아침 공양시간에 선림사에서 오신 법용 스님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용 스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겐 더 없는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법용 스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가 걸어온 눈물로 얼룩진 딱한 사연을 다 들으신 다음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동생을 제자로 뽑아주셨습니다. 동생의 출가는 이처럼 피눈물나는 시련과 역경을 겪은 뒤 얻은 부처님의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3남매를 둘째 형인 우리 부부에게 입양시킨 동생은 무더운 어느 여름날 눈물 속에 속세를 떠나, 지금은 학인 스님이 되어 부처님 전에서 열심히 용맹 정진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닦는데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세차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신바람이 나고 희망이 생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음악, 미술, 역사, 문학, 철학 등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근심을 없애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해우소(解憂所)라 부릅니다. 그 해우소란 이름에 착안하여 세차장 이름을 '해회처(解悔處)'라 지었습니다. '해회처'는 일상의 스트레스는 신바람으로, 나와 같이 시련과 역경에 처한 분들의 우울함은 희망으로 바꾸어 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그림.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어두침침한 등잔불 옆에서 어머님이 바느질하는 모습의 사진과 양주동 작시의 어머님 마음 노랫말, 동해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 사진, 그리고 천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농다리 사진을 세차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향수를 달래 줄 수 있고 신바람이 절로 나는 음악을 편집하여 이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정상구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차장 이름은 '과거의 고통과 후회를 풀어준다'는 의미의 '해회처'다.



세차를 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닦는데 어느 분께서 차안에서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세차를 할 때 어두운 등잔불 옆에서 바느질하시는 어머님의 사진과 귓전에 들려오는 양주동 작시의 어머님 마음 노래 소리에 지난 시절 어머님과 함께 했던 그 어떤 아련한 추억이 그리움으로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사람을 울리세요"라고 나에게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손님은 이순이 넘어 보이는 중후한 인품의 노신사 분이었습니다. 감성이 엷어질 연세인 어르신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는 가슴 한켠이 뿌듯해져 왔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는 제말에 다음에 또 오신다 하시며 떠나가시는 손님을 배웅할 때, 주인인 나도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눈가엔 이슬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지요. 세차는 비록 자동차를 닦는 아주 작고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닦을 때 유년시절 고향에서 뛰놀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녹인 다음, 나이아가라 폭포의 떨어지는 폭포수에 녹여진 그것을 던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일상의 피로를 많이 비워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비워진 자리에 어머님의 무한한 사랑과 함께 동해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한껏 채워 본다면 희망과 신바람은 절로 생겨나지 않을까요?

세차를 하며 얻어진 희망과 신바람으로 천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농다리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삶의 행복지수는 부처님의 자비심만큼이나 무한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차방법을 '마음까지 닦아드리는 세차법'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흐뭇해 합니다.

오늘도 세차장 해회처에서 세차를 하신 후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손님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下>



백유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기법, 지식아닌 마음으로 이해
통찰의 반복으로 고요한 생활

고(苦)에 대해서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졸업하기 전의 한 사건이 기억난다. 가을 어느 날이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머리가 새하얗고 눈빛이 형형하던 아버지들 둔 그 친구가 1주일 뒤에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 축하해." 그러나 돌아서서는 걱정이 살며시 되었다. 그 당시 나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많이 빠져 남들이 보면 병든 닭같이 보였다. 고등학교 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남들에게 보여 주기가 싫었다. '가야 한다.' '가고 싶지 않아.' '가야 해.'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엄청난 심적 고통이 도래하였고, 그와 함께 스트레스성 위 십이지장궤양이 생겼는지 명치부위가 쥐어짜듯이 아파왔다. 어찌 할 방법이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직 고통 뿐이었다.

이 글을 적는 지금 회상해 보아도 그 고통의 느낌만 있을 뿐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숙집에서 뒹굴 뒹굴,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이었다. 그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가에 놓여 있던 작은 책자 하나를 집어 들었다. '아잔 차'라는 태국 스님이 서양 대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법문한 내용을 '고요한 소리'에서 옮겨 출간한 것이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책장을 들추는 데, 앞서 읽었던 누군가가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붉은 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갑작스럽게 확 열린 것 같았다. 어리벙벙하여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가…. 그렇구나. 옛날에도 익히 알고 있었던 연기법에 대한 법문을 영어로는 "모든 사물은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다.

수없이 연기법에 대한 해설과 법문을 들었건만, 지식으로 이해한 것은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 의미를 깨쳤던 것이다.

아무튼 유리컵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었다. 그전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으로서의 유리컵의 깨어짐 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로서의 유리컵이었다. 그래, 연기법이 무아다. 무아가 바로 열반이다. 절대적 자유다, 아니 자유란 절대적인 것이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이런 절대적 느낌에 머물러 있었다.

광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따뜻한 훈풍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게 허수아비 같은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쥐어짜듯 아프던 명치부위도 씻어낸 듯이 사라져 버렸다. 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결혼식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참석하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함과 따뜻함이 유지되었다.

후에 그 고통이 마치 일종의 활구(活句) 공안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중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인도 명상가의 책을 원서로 접하게 되면서, 그가 얘기하는 '슬픔이나 위기와 함께 그대로 있기', '모름의 상태로 있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슬픔이나 고통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극한에 이르면 폭발하는 듯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훈기가 가시고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라도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 또 통찰에도 깊이와 수준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그 체험을 놓고 처음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리라. 그래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것이 큰 자산이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신 주인공에 감사할 따름이다. (끝)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구매고객 모두에게 고급원목단주를 증정합니다. 무료배송 (단 3만원이하 제품은 배송료 4,000원 별도)

[기간] 2004년 1월 14일 ~ 2월 13일까지 (딱, 한달간)


※ 마하몰에 직접 방문하시면 희담석의 효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판 매 가: 2,800,000원 ⇩
특 판 가: 2,380,000원
사 이 즈: 90cm X 180cm X 10cm
※ 설치비 별도(10만원)



37°氣베개 + 
37°氣 제품 한개더 100개한정 판매


황토달마 100개한정 판매

판 매 가: 198,000원 ⇨ 특 판 가: 98,000원
규 격: 가로 25cm x 세로30cm
재 질: 지리산 황토 100%
특 징: 황토달마를 집안에 모시고 물을 뿌리면 겨울철에 가습기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 매 가: 198,000원 ⇨ 특 판 가: 158,400원
사 이 즈: 38.5cm X 35.5cm 색 상: 회색, 살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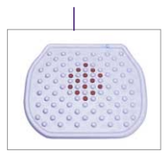

●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 매 가: 38,000원 ⇨ 특 판 가: 30,4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경안스님<전남 덕흥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 김용섭<여/66세, 강북구 미아동>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열꽃이 솟고 팔꿈치 윗부분이 숨도 못 쉴정도로 아프던 지병 때문에 지난 10년간 좋다는 원적외선 치료기, 각종 매트등을 사용해 봤으나 일시적으로만 약간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우연히 <희담 침대>를 알게 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자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놀라와 했다.



37°氣방석 + 
● 37°氣베개 - 일반 메모리폼 베개가 아닙니다
판 매 가: 69,000원 ⇨ 특 판 가: 60,000원(2개)
색 상: 아이보리, 하늘색
사 이 즈: 47cm x 29cm x 8cm

● 37°氣방석
판 매 가: 40,000원 ⇨ 특 판 가: 20,000원(2개)
색 상: 연보라, 베이지
효 과: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 불량에 좋습니다.



● 달마원목시계(원형, 팔각형)
판 매 가: 55,000원 ⇩
특 판 가: 각 33,000원
재 질: 체리목 크 기: 400mm
특 징: 고급 무소음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고장이 없고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1년간 무상 A/S)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 02)732-1520
농협 : 053-12-113210 하동규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람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우리집도 100%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
부부문제(금전 · 애정 · 갈등)
자녀문제
(학습태도, 친구관계, 직장문제, 부모+형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정기강의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시친견 : 월~일요일 오전 11시 이후
장 소 : 성북구 돈암1동 83-2 (해인사 내)
문의전화 : 02)925-3747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 싶은 남여
행자님을 모십니다
031-868-1832~3
011-9822-6469
경기도 동두천 옥금산 불면암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불교 전통 의식과 국악예술의 만남
-예수재 천도재 점안식 49재등을환희심과 감동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017-856-5623

부전스님과 법당보살님을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함께 수행하면서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삼각산 원각사
02)391-5975
011-9971-5975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합니다
052-254-5125

부전 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016-787-9409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이천
031-641-6311

불사하시면서 평생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5세 미만 ▷ 충남
010-3146-0852

1. 천일기도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 합창단을 이끌어주실 **피아노선생님**을모십니다
032-873-1059
016-443-9933

산세수려하고 매년 10월이면 법비가 내리는 영험도량에서 기도하실분 스님이 되고 싶은 **남녀행자 모집**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
033)672-2900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모집

행자님 모십니다
▷ 접수마감일 : 1월 30일
▷ 접수처 : 한국불교조계종유지재단 총무원 청운사
▷ 위치 : 경기도 여주(나이제한 없음)
031)881-337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경남
011-9346-5719

부전비구스님을 모십니다
▷ 대구
053)961-0224

공양주 모십니다
▷ 침식 출퇴근 가능
어머님 합창단 지휘자 피아노 연주 자원봉사자 모십니다
031)978-9782
(경기도 광명사)

큰스님 밑에서 불교를 정법으로 배우실 행자님(남)을 받습니다
031-542-0295
011-9894-0777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북 경주시 양북면
054)776-7250
016-278-91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청 주
(50세 이상)
011-459-32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
016-521-0003
054-975-0003

고급 사주프로그램 3만원
▶ 컬찬리 판매중 – 기간
▶ 고급형 사찰종무관리프로그램 증정
▶ 고급 사주프로그램(시중동급제품 70만원) 2004. 2. 7까지
- 사주내용 : 사주, 이사방위, 궁합, 택일, 작명, 부적(인쇄가능), 사주 전문가도 만족
- 계좌번호 359-04-534378(조흥 : 오정택)
- 연락처: 018-270-1856
- 본원기획 오정택 실장 – (주)지우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가입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50%이상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자 – 자 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H·P: 011-302-8435, 011-249-3378, 011-898-4680 e-mail: neungin@chollian.net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 교육일정 : 2004년 2월 11일(화)~12일(수) 주 1회
★ 강사 : 초 · 중급 – 남륜 스님
★ 사주통변 – 김재덕 (SBS 인생역전, 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 관상학 (특강) – 신기원 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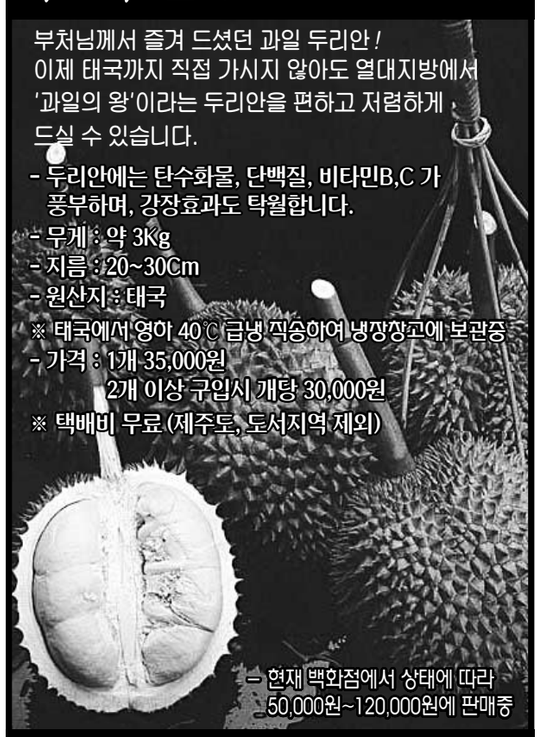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성수철학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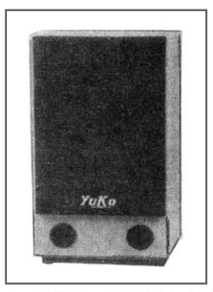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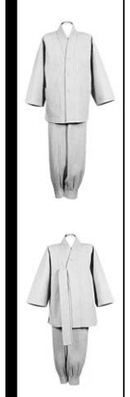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남원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납골탑 : 100기 / 부지 : 2000평 / 가액 : 1억9천
- 위치 : 경기여주 / 법당 : 15평 / 요사 : 70평 / 부지 : 2050평 / 가액 : 3억
- 위치 : 충남서산 / 법당 : 20평 / 요사 : 11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 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 부 지 : 1200평
- 법 당 : 11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2억 5천
- 위 치 : 경기
- 부 지 : 2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2동 70평
- 가 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양산 / 부 지 : 9천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40평 / 가 액 : 3억5천 / ※양산신도시 뒷산 도로완비 차량진입
- 위 치 : 진주 근교 / 부 지 : 7천평 / 법 당 : 26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4억 / ※남강댐에서 10km 신축사찰 교통편리
- 위 치 : 지리산 / 대 지 : 9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3억 / ※천왕봉아래 중산리 입구 홈페이지 사진 참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마산 창원 사이에 있음
- 대지 182평, 법당 2층 30평(천불전), 법당 1층 30평(대웅전), 용왕단 산신각4평, 영정각 3평
- 요사채 2층 33평(방4개, 입식부엌, 거실, 목욕탕, 화장실)
  요사채 1층 40평(사무실5평, 주지방5평, 신도방 10평, 화장실3개)
  요사채 지하 40평(부엌 6평 외 부엌있음, 공양간 34평, 화장실)
  ※ 4차선 도로 바로 인접, 주차장 넓음

055-288-0830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일법당, 큰방1(가로25자,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 불사금 보시하시고 함께 생활하실 불자님 환영

041)934-851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명산
- 부지 : 1500평 ● 법당 : 35평
- 목재 : (5포, 7포)
- 요사 : 70평(목재)
- 양도가 : 12억
-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 위치 : 충남 금산 소재
- 대지 : 400평
- 법당 : 25평(목재,황토)
- 양도가 : 2억2천
- ※ 수행 암자로 최적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법당 : 대지 97평
- 1층에는 대웅전, 산신, 용왕단
- 법당 2층 : 천불전
- 종각 2평, 입주문 1동
- 요사채 대지 85평
- 지하 식당, 1층 사무실, 2층 살림집
- 가액 : 7억
- 가정주택으로 등록되어있음

055)288-083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서 5분거리
- 건물 평수 : 총 40평
- 임법당 10평외 방4개, 목욕탕 2개
- 조건 : 매년 도지 18만원외 묘지관리
- 가액 : 6천 500만원

033)662-8713
010)3030-87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흥덕사지옆 흥덕사원
- 평수 : 총 60평 법당 15평, 방 4개, 거실, 목욕탕, 부엌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1-806-4867

단독주택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46-312 (산, 임야와 인접하여 있음)
- 평수 : 대지 점유면적 약 120평 (대지 70평 + 국유지 약 50평
- 건물 : 약 35평(1층 슬라브건물) (방 4개 + 화장실3개 + 넓은거실) (6년된 신축건물로 건물상태 깨끗함)
- 주위환경 : 본 주택옆에 약 1100평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형주차장, 체육시설, 휴게실등 편의시설 있음
  수십그루나무, 탁트인전망, 그림같은 조경, 하루종일 새소리가 있는 도심속 전원주택이며 사찰用으로 개조가능함
- 가액 3억원(은행감정가 2억 8천만원) 융자 1억 7천만원(국민은행)

011-9914-8837(주인직접)

사찰안내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 대지: 100평
- 임법당(임대) 방3개, 주방1개
- 가액: 7천만원

011-888-01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방동 계룡시 인접
- 대지 70평, 임법당, 건물 40평
- 방3개, 주방 1개
- 보증금 100만원, 월 17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살림살이 일체, 몸만와서 운영 가능

033)672-2900

사찰 안내

- 위치 : 아산과 공주 경계
- 부지 : 4500평
- 요사채 30평,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새로절을 불사할 분만 전화요망
- 납골묘 300기

041)841-075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4층 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1개, 주방1개,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역학을 할 줄 아시는 분 환영
-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9852-8386
051)782-9386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0만원

033)766-0057

사찰 안내

- 위치 : 팔공산 선본사 방향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슬라브 30평
- 대지 180평, 노천 용왕당
- 입구까지 포장도. 주차 30대 가능
- 산세가 좋고 계곡물 흐름
- 지하수 1일 500톤. 창건 1년
- 가액 : 3억3천만원(중개불요)

011)860-201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 교통 전철 편리.
- 상권 지역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16)368-691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문현동
- 대지 120평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 전세 5000만원

051)636-3418
011-876-864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망우4거리
- 4층건물 중 3층
- 법당 30평, 방2개, 부엌1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9)571-1732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법당 30평,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부지 1천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41)567-0392 / 011)723-6640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목조 한옥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좋은터 경관도 좋음
- 가액 : 2억원

016)249-3393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30평
- 보증금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 600만원

011)662-7372/016)344-1129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참회 · 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붙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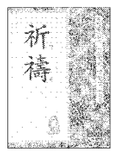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 도 祈禱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눈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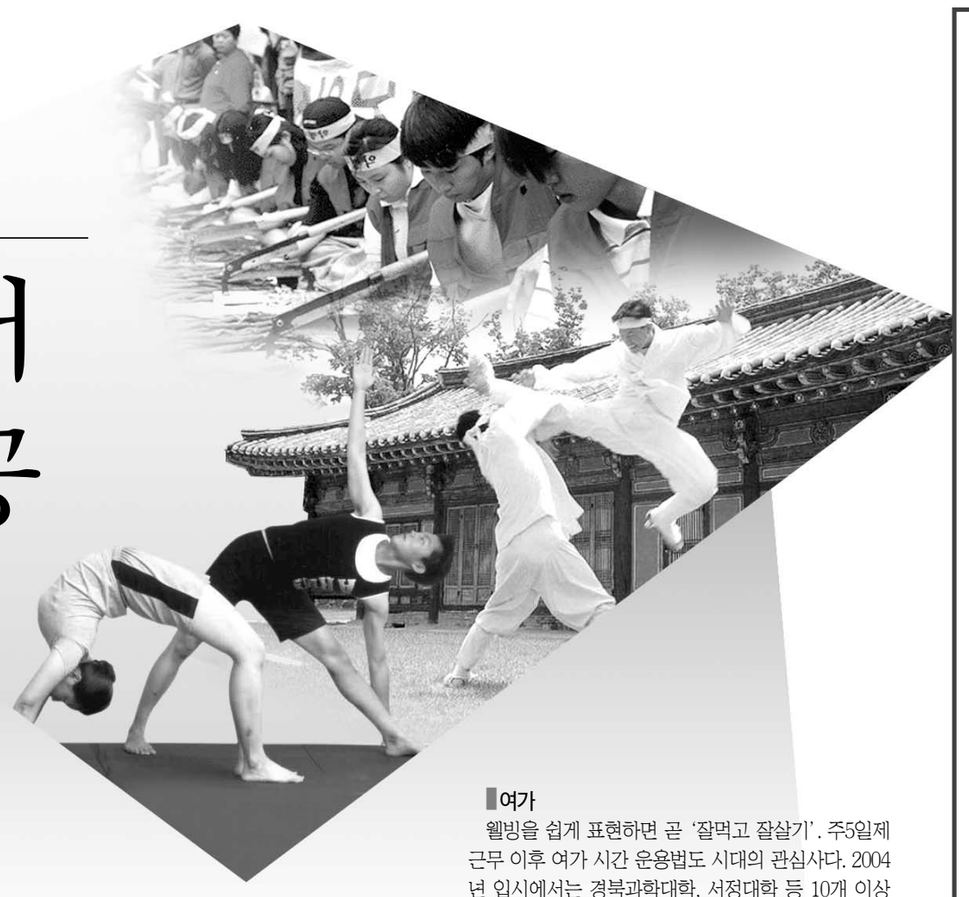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생활 · 학문 둘이 아니다

대학 가서 웰빙 전공 해볼까?



전통 심신수련법 '국선도' 교육, 아로마테라피스트(향기치료사) 과정 이수, 커피 바리스타(커피 제조와 구매, 서비스 등을 책임지는 커피전문가) 훈련…. 문화센터 강좌 소개가 아니다. '진리의 상아탑' 으로 불리던 대학이 최근 개설한 정규 학과와 전공 얘기다.

웰빙 바람이 거센 요즘, 제도권 대학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이색 학과들을 잇따라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활과 학문은 둘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일까, 생활 속으로 뛰어든 상아탑의 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눈길을 끄는 웰빙 이색학과들을 소개한다.

수련 · 명상

웰빙 시대 건강의 핵심은 단연 명상에 있다. 춘해대는 이미 2001년 요가학과를 신설해 2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원광대는 동양학대학원 내에 요가학과 기공학 전공을 두고 있으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상담심리학과에서 명상치료와 요가치료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명상을 독자적 학문으로 접근한다는 취지 하에 모든 명상수행법을 포괄해 지도 · 연구하고 있다. 이봉순 교학처장은 "명상수련과 학회참가를 포함, 33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며 "올해 8월 국내 최초로 명상학 석사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명상 열풍에 관련 전공 개설 붐

택견 등 심신수련법 학과 포함

전통 수련법도 학과과정에 포함됐다. 영동대학교는 2002년 스포츠학부에 국선도학과를 개설, 67년 고한영씨에 의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전통 심신수련법 국선도를 학과과정에 포함시켰다. 용인대학교 역시 동양무예학과 내에 택견 전공을 두고 있으며, 영산대학교는 택견과 태극권을 포함해 무예기공 · 건강기공 등의 기공 전공과정도 마련했다.

자연요법

웰빙이 추구하는 건강의 바탕은 바로 인체의 자연치유력. 이에 따라 자연요법을 이용한 대체의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원대학은 2003년 자연요법과를 신설해 자연요법 치료지도자 양성에 들어갔다. 대구과학대학은 올해 보건허브과를 개설했다. 이광우 보건허브과 학과장은 "아로마협회와 연계한 향기치료법, 약초재배 연구 등을 통해 대체의학의 생활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의학의 생활화 중점 교육

제도화, 대학원 설립 활발히 추진

전문대학원에서의 연구도 활발하다. 포천중문의대는 대체의학대학원을 설립해 동종요법, 기과학, 아로마요법 등의 전공필수과정을 마련했다. 전세일 대체의학대학원장을 필두로 김상우(전통허브요법), 오홍근(아로마요법), 이선옥(禪舞) 등의 교수진이 폭넓은 연구 지도 활동을 펴고 있다. 2003년 개교한 자연치유대학 또한 경락경혈학, 약초학 등의 자연치유 전문 과정을 제도화했다. 원광대는 특수대학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예술치료, 요가 등의 강좌를 취합, 대체의학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

웰빙을 쉽게 표현하면 곧 '잘먹고 잘살기'. 주5일제 근무 이후 여가 시간 운용법도 시대의 관심사다. 2004년 입시에서는 경북과학대학, 서정대학 등 10개 이상의 학교가 애완동물 관리 및 미용과를 개설했다. 또한 강원관광대학은 퓨전요리 전공을, 성덕대학은 약선요리 전공 과정을 마련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2003년 푸드스타일리스트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성덕대학 호텔조리계열 학생들의 실습 모습.

주5일 근무제로 시간 활용 관심

중앙대 템플스테이 과목 지정

다도를 여가로 즐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학과도 늘어났다. 한서대와 부산여대 등은 학부과정에 다도학과를 마련했다. 또한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은 다도 관련 대학원 과정을 통해 다도 전문을 양성중이다. 이외에도 선린대학은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올해 골프경기 지도과를 신설했고, 부산예술문화대학은 2003년 여가 및 건강문화의 효과적 활용을 목적으로 여가건강과를, 대구보건대학은 헬스매니지먼트과를 마련했다. 또 중앙대학교는 지난해 템플스테이를 교양선택 과목으로 지정, 2박 3일의 템플스테이와 6시간 봉사활동으로 3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❹

인체 대우주의 일부

인체 3가지 구성 요소

현대의학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구조들에 대해 획기적인 많은 사실들을 밝혀 내었다. 세포를 비롯한 DNA의 미세한 구조, 심지어는 염색체 속의 유전자 배열까지 알아냈을 뿐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 일컫던 게놈 지도까지 완성해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인체의 모든 비밀이 벗겨져 이제 현대의학으로 풀지 못할 과제는 더 이상 없을 듯도 싶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상 현대의학은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생리적 현상 과정에서 이런 미세 물질이나 구조들이 어떻게 협동하여 생명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다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그림 / 김영민

현대의학, 생명력 전개 지식 부족
아유르베다, 1프라나 3원론 주장

예를 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명상에 잠기게 하며 잠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 또는 망각하게 하는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 일부는 분해돼 영양소로 작용하고 일부는 대소변으로 배설되는 기전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같은 양의 음식, 같은 운동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가 등등 이런 류의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 현대의학은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다. 자르고 나누고 쪼개고 분석해 더 명확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런 방법은 물질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유르베다가 현대의학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이유들에 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 즉,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이루어내고 관장하는 조직들의 상호 유기적인 지식과 정보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해 우리 몸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우리 몸은 3가지 기본 시스템(dosha, dhatu & mala)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 중 다투(dhatau)와 말라(mala)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투는 기능과 구조, 그리고 물질을 대변하며, 말라는 신진 대사 후 영양과 열로 이용되지 않고 남겨진 노폐물을 말한다. 반면 도샤(dosha)는 관찰할 수 있는 존재지만 물질이나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생리 · 생화학적인 역동성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도샤는 다시 '3 dosha설' 로 나뉜다. 이것을 알기 쉽게 한의학과 비교해 보면 이렇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생명력이 기(氣)에서 출발해 음과 양의 조화로써 생명 현상이 유지된다고 본다. 이것이 1氣 2원론이다. 이에 비해 아유르베다에서는 생명력은 프라나(prana)에서 나오며 이것이 vata, pitta, kapha라는 3가지 생리적 역동성에 의해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1프라나 3원론을 주장한다. 즉, 우리 인체는 대우주의 일부로, 이러한 우주의 현상이 인체의 현상으로 직접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이 3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포천중문의대 교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2. 4(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과 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높은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2. 6〔09:00~12:00〕※주말반, 개인지도가능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수준까지 지도해 드립니다.
▶ 개강 : 2004. 2. 6 (주 1회, 주 · 야간반 : 2개월 완성)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즙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조끼 · 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서츠
8. 셔 츠 ₩6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70,000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35,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그림 · 최주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생활에서 여여하게

457호에 이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그런 걸 아십니까? 아니, 나뿐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곤궁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순간의 놀란 그 마음을 조금 진정을 하고 보면 눈에서 뼈저린 눈물이 흐르죠. 어떻습니까? 딴 거는 안 그럴까요? 그 마음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해서 낳는 거든 전체를 다 둘 아니게 한 낚시에 탁 걸어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낚시도 낚시 없는 낚시여야 합니다. 그냥 낚시라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또 손 아닌 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는 그 한생각이 전체를 담아서 건질 수 있는, 자동적으로 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현실로 연구하는 것도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그건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딴 데보다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탁 쳐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미국이 소련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또 소련이 미국보다 높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깐요.

그 연구들을 하는 마음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써, 머리로써 연구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거를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신으로 돌아서 가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거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계합이 돼서 돌아가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감각으로서 머리를 쓰는 현재의식 자체가 결정짓는 마음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자라는 50%가 돼서 모자라는 물질세계 50%에서 그냥 사는 여러분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생각은 바로 한데 계합된 정신이라야만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합된 그런 연구인이 있다면 만약에 글을 연구할 때에 그 모든 자료를 같이 넣어서, 예를 들자면 탐지기는 탐지기대로 어떠한 분별만 하게끔 하고, 또 어떤 거는 어디 있나 그것만 봤는데 지금은 어떠한 걸로 썼는가, 어떠한 걸로 만들었는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컴퓨터로 나오게끔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알고 보면 지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가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최대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최대의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뜻을 그저 아무렇게나, 팔만대장경에 모두 말씀해놓은 걸 지금 요 사는 데에만 꼬작꼬작 붙여놓으니 이걸 어쩝니까? 저 우주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갖다 넣고 그냥 슬슬 굴리게끔 해놓지를 않고, 슬슬 굴리게 해놓은 그 경서의 내용을 조그마한 데다가 딱 붙여서, 우리 사는 데다가 붙여서 항상 빌게 만들어놨어요. 예? 항상 모두 나를 믿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자'라는 말을 안 넣었기 때문에 모두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 고기 덩어리를 믿으라는 줄 알고 온통 그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붙여놓고는 전부 비는 겁니다. 아니, 이름들은 모두 상표입니다. 물건의 상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복으로만 자꾸 돌아가서, 이 기복이라는 것도 좋은 말로 들리겠지만 그 말보다도요, 행이 모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이란 말입니다, 또 얻어먹게도 하고요. 나중에는 얻어먹다 얻어먹다 강도질까지 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몸뚱이가 없어지고 의식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금은 금대로 놓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전부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부 끼리끼리들 모입니다. 누가 오너라 가거라 할 것도 없이 자기네가 공부한 과목대로 그냥 풀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마음이 죽어도 역시 항상 해꼬지를 하는 겁니다. 그저 살아 있는 거기 가서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는데도 말도 안 하고,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도 왜 아는 척도 안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모르는 줄을 모르니까요. 보이지 않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내가 여러분한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합니다. 너는 과거에 어쨌고 과거의 부모네가 어쨌고 자식이 어쨌고 뭐 이렇게…. 그거

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 군데다 묶어 놓고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야

여러분은 마음공부 하러 다니는 것을 괜히 다니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하죠. 궁금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큰 비행기도 공중에서 감쪽같이 없어지고 바다에서도 감쪽같이 없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작게 표현을 한다면 그건 자력에 끌려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 사람까지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전체 손아귀에 쥐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계신 데가 없고, 손이 안 가는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이 그렇게, 모습 아닌 그 속에 바로 불종(佛種) 그 자체로서, 불종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불종으로 어디든지, 어디든지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어마어마한 공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겠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입으로 먹고 똥으로 안 누면 막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단전호흡을 해서 바깥으로 나쁜 기를 모아서 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되고 마는 그 몸뚱이조차도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생각도 떨어지는데 뭘 어떡할까요?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린 영원하기 위해서, 또 영원하게 내가 살 양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로 돼 있는, 어떠한 목신이든지 어떠한 지신이든지, 흙에서 나는 거든 나무에서 나는 거든, 공중에서 나는 거든 또는 태에서 낳는 거든 알에서 낳는 거든, 습한 데서 낳는 거든 화(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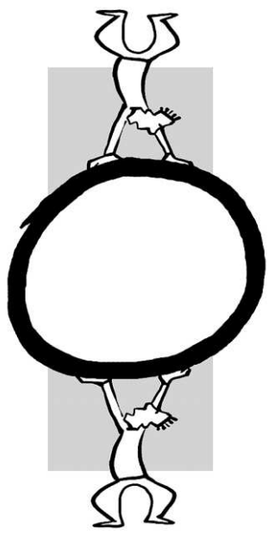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깡통을 들고 빌면서 그 깡통에 무엇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반찬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밥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아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관세음보살!" 또 "취직을 못 했는데, 취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이렇게 만날 얻으러만 다니는 겁니다. 얻으러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 내가 먹는 거지 누가 나를 먹여주고 누가 행복을 갖다주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

인과에 의한 모든 걸 녹이는 법이요 습을 떼는 법이요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다 얘기한다면 복잡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 그걸 밀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어떡하느냐는 거죠.

어떤 땐 정 이게 이러면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러 다만 얼마를 봉투에 해가지고 올 때 말없이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왜냐? 전자에 살던 조상분들이 너무나 몰라서 자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의식으로 살았던 거기에 치우쳐가지고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나에게 못 해주느냐?" 이러고 전자부터 나오던 게 자꾸자꾸 얽매여서 돌아가는 거죠. 얽히고설킨 게 다 붙어 돌아가니까 그거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이게 몸뚱이 갈 때 혼자 홀가분하게 가고 마음도 홀가분해야 걸음도 잘 떼고 좋은데 한 짐 잔뜩, 만약에 귀까지 요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있으면 팔도 움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회사 사장이 골수염으로 모두 죽는다고 그러고 고생을 할 때,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부산을 가시려고 애를 쓰면서 차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차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득 물건을 실어놨으니까 팔도 움죽거릴 수 없고 귀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부산을 가십니까? 물건 좀 내려놓으시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지죠. 양 어깨에 있는 것만 내려놔도 갈 텐데 못 가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이러면서 그냥 홱 가버리는 거예요.

아, 못 알아들었더라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은 그 뜻을 알 텐데 그냥 가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빙긋이 웃으면서 '아,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시더니 정말 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은 돈만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겁게 짊어졌다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

☞18면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한철공부 잘 한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17면에서 계속

게 생각하고선 그냥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곤 말았죠. 그랬더니 그 식구들도 다 그렇게 됐고, 그 회사 재산도 그만 그렇게 됐고….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 급급해서 그냥 애를 쓰고, 이름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론으로 배우려고 애를 쓰고, 지식으로 살면서 남의 거를 갖다가 빼서 어떡하든지 내 걸 만들어서 그저 좋게 얘기해주면 될 줄 알고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법사스님더러 그랬습니다. “선객으로 가시는 큰스님네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동감입니다. 스님 생각이 옳습니다.” 이러시더군요. 내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도리를 앎으로써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뜻을 지니고, 진실한 뜻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가 익게 되고, 익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면 언제나 나 아님이 없고 전부 들이 아니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도리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을 모두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집을 해서 그저 비는 걸로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법성게(法性偈)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종성(鐘聲)도 그렇게 좋은 말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아주 비는 걸로만 해놓고, 그나마 그냥 원문으로 둔 것은 또 괜찮고요. 하여튼 바깥으로 끄달리지만 않으신다면 빌지 않을 겁니다. 또 안으로도 빌지 않을 겁니다.

둘로 본다면 기도를 해야 하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관(觀)하라.’ 이런 소립니다. 내 주인공만이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소립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런다면 그 무엇이 있었던가? 그냥 주먹으로 이걸 하나를 집어서 한 번 친다면은 쩡 울리는 그 뜻! 두 손으로 그냥 두 개를 집어서 팍 친다면 번쩍 불이 일어나는 찰나 이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재미있고요,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생활을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빌어먹으려고만 하고 빌고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그냥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금방 그렇게 났다가 금방 이렇게 늙든지 젊든지 죽는다, 그런다면 의식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 의식을 자기가 알면은 그냥 곧바로 갈 것이고, 죽기 전에 벌써 대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요. 그러고는 집을 다 마련해놓고 가고, 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집도 안 해놓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또 만들고, 또 그것도 모른다면 집을 만들려고 거기 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죠, 아무 데나. 돼지 소굴이든 뭔 소굴이든, 그저 돼지우리든 소가 있는 데든 새가 있는 데든 뱀이 있는 데든 그걸 모르니까, 까치 둥우리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게 한 번 잘못에 그 소굴로 들어가 그 모습을 가지면 그 모습이 살고 있는 거기의 의식이 배어가지고는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요, 어마어마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손 안에 넣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왔다 그냥 슬며시 스러져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한 철을 잘 공부한다면 세세생생에 우리는 끄달리지 않을 거고 얽매이지 않을 거고, 일체가 나와 둘이 아닐 거고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툴 거고, 나투는 까닭에 건질 거고 건지는 까닭에 부처와 부처가 둘이 아닐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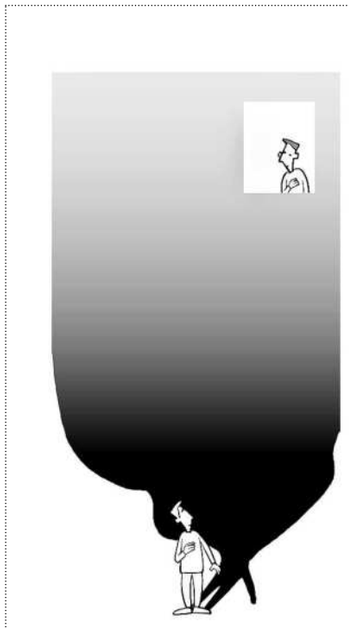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
> **전체를 다 둘 아니게 한 낚시에 탁 걸어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
> ”

아무리 부처가 수만 명이 됐다 할지라도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버려요. 부처님의 제자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마음과 그 깨달은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이것도 부처 저것도 부처, 모습은 다르지만 다 부처인 것이죠. 하나입니다. 부처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없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도 없느니라. 왜? 제자가 만 명인데 아, 글쎄 제자가 자기와 같이 다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했든 깨달았든, 하여튼 그 만 명이 다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그냥 합쳐져서 계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나다 할 수도 없고 부처가 많다 할 수도 없고, 부처가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엉거주춤 말하기를 ‘무(無)!’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마저도 없으니 하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 개가 됐다가, 만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 개가 제가끔 됐다가, 그 만 개가 또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억만 개도 될 수 있으니 어쩌느냐 이거죠. 그러니 부처라는 이름도 없느니라. 그게 바로 부처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좌석에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마음 안에서 그냥 하나의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 그전에 내가 광명선원(光明禪院)에서 설법할 때 그랬죠. 그때 뭐, 요것만 생각나요. ‘구이팔이….’ 라고 그랬던가? 그러면서 무슨 시를 읊은 게 있어요. 십년 전인지, 아마 십년 전일 거예요. 그때 또 ‘팔팔공치기는….’ 이런 시 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해서 던져놓는 거죠. 그대로 생각해서 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나와요. 이것이 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자동과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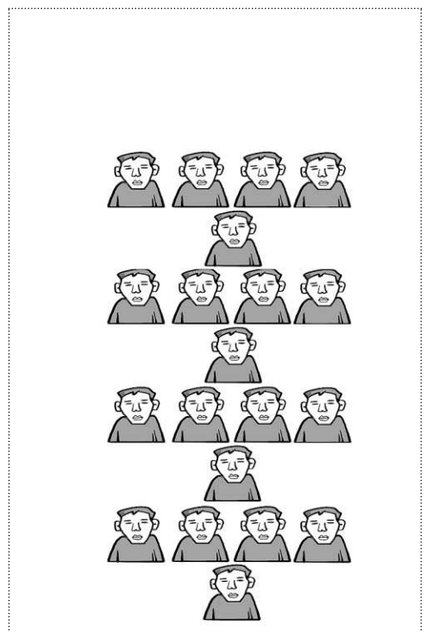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동심 과학.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 잘 치뤘죠? ‘십중팔구 좋을 씨고.’ 했으니 말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우리가 삿갓 쓰고 주장자 짚고 신발을 거꾸로 머리에다 쓰고, 거꾸로 다닐 줄 안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을씨고’ 예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나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따로 이렇게 모습은 있지만 따로 없듯이, 부처 중생이 따로 없듯이 그 뜻을 앞으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배우는 것만 아니라 증득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자기 주인공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 가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군데 다 묶어놓고,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세 가지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인과에 의한 모든 걸 녹이는 법이요. 둘째는 습을 떼는 법이요. 셋째는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가정도 편안하고 내 맘도 편안하고, 전부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슬며시 스러져선 안돼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2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月 넷째주 (화 ~ 금) 강의장소 : 부산
2月 둘째주 (화 ~ 금) 강의장소 : 서울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서울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자 세상보기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방송작가

부처님이 꿈꾸는 세상

얼마 후면 엄마 일주기가 돌아온다. 벌써 돌아가신지 1년이 됐다. 엄마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난 1년을 거뜬히 살아냈다. 두 다리는 물론 두 팔도 자유스럽지 못했던 나는 47년 동안 엄마를 의지해서 살았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엄마 없으면 한(寒)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살 궁리를 해라."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 딸을 강하게 키우셨던 것이다.

철없던 시절 난 엄마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위에는 장애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다.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가족이 포기한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잘 보살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텐데 버려진 장애인은 장애 속에 갇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장애인이 되고 만다. 장애 때문에 버림을 받은 순간 이미 한 번의 커다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천륜을 끊어버리고 이 넓은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니 그것은 죽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장애인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먹고 자는 것 걱정은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꽁꽁 언 몸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

미인가 시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요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후원의 손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예전처럼 설날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다. 사회적 무관심이 장애인과 같이 불우한 이웃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원생이 50명이면 그 가운데 절반은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장은 원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란다.

호적이 없는 무호적자가 많아서 의료 보험이 안돼 병원비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인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나누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돕는 일을 좋은 일 이라고 하면서 착한 사람이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은이라고 하였다. 은혜에 보답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빚이다. 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니까 되돌려줘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육바라밀의 첫 덕목인 보시의 가르침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이들에게는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관심이 큰 보시가 되기 때문이다.

장애와 가난과 질병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묻혀 살고 있다. 사회의 무관심에 괴로워하는 불우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제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래야 작은 행복도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이 꿈꾸는 세상도 이런 더 큰 행복이 있는 세상일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전문화 되는 종무행정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이 조계종 총무원 내 법률지원단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다. 불교 종단에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영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 때에, 특히 그 필요성이 절박했던 법률 계통의 전문가가 영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출세간적인 종교로 여겨지고 있고, 그 종단의 핵심을 이루는 출가인들은 그 출세간성의 표상으로 비쳐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불교로 서기 위해서는 세간과 밀접하게 교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 문제는 발생한다. 그런 경우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잃기 쉬울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기 쉽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는 많은 재가자들이 실무진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 위에 스님들의 출세간적인 성향이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혼입되어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체제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일의 결정과 추진, 집행에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리에 초연한 출세간적 정신을 바탕에 두되, 그러하기에 더더욱 세속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치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청정 종단의 위상이 서는 것이다.

물론 조계종 총무원이 이러한 방향을 올바로 지향하고 있었기에 이번의 법조인 영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문인력이 불교 종단을 가장 좋은 일터로 생각할 만큼 높은 처우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세련되고도 수준높은 대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 나가는 불교로 그 위상을 세워야 한다. 가장 올바르고 뛰어난 세간법의 운용을 보일 때 출세간적 정신의 수승함도 선양된다. 이번에 불교계에 봉사를 하기로 한 두 법조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에 뒤따르는 종단적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종단들이 전문인력의 양성과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아침형 인간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아귀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다. 〈보살본행경〉

'실미도'와 '아침형 인간'. 요즘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는 영화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다. 영화는 '웰 메이드'로 매스컴의 상찬을 받고 있고, 책은 '웰 빙'과 성공을 얘기한다. 이런 점 말고는 둘 사이의 유사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메시지는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다. 영화는 국가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개인의 시각에서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책은 철저하게 '개인의,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성공을 속삭인다. 여기서 영화와 책의 접점을 발견한다. 개인!

영화는 '호전적 애국주의'라는 최악의 국가주의에 희생된 개인에 대한 진혼곡으로 읽힌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한편, 영화 속의 개인이 아닌 2004년 지금을 살고 있는 개인은 '아침형 인간'에 열광한다. "남보다 앞선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모든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 된다면? 모두 다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우뚝 서 있을까?

이미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아침형 인간이 존재한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적인 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 사회는 경쟁 탈락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공한 아침형 인간도 마음은 편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아침형 인간이기는 힘들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성공 신화는 실패한 아침형 인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아침형 인간'이 파고 있는 함정이 그것이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을

나는 조그만 영세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불자다. 우리 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을 일해 온 불법체류 숙련공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이유는 프레스와 선반 등의 조작과 쇠를 깎는 등의 힘든 일에 우리 근로자가 없는 까닭이다.

이들은 모두 불교인이지만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가까운 곳에 불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찾을 수 없었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다.

중생과 함께 한다는 불교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져 일한만큼 대접 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영호(안산시 고잔동)

파괴되는 우리 글과 말

요즘 우리 말은 수난을 겪고 있다. 잘못 쓰이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영어 같은 외국어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단적인 예로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 영어가 이제 거의 모든 기사에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 이벤트, 세미나, 릴레이, 체크, X파일, 메시지, 프로그램…. 이처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외국어들이 부지기수에 달한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의 사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약간의 언어 혼용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언어문화가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인터넷을 '누리그물'로 쓰자는 글을 아주 감명깊게 읽은 일이 있었다. '누리그물'은 온 누리를 엮는 하나의 큰 그물로서 불교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한다.

'아름답다'는 원래 나답다(우리답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외국어를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일이 우리다운 일인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갈고 닦아 쓰는 일이 우리다운지 깊이 생각해보자. 언어는 그 시대의 정신이다. 과연 지금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황인용(서울시 반포동)

공부하는 스님 많아야

조계종이 승가교육제도를 실질적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로 바꿔 승려의 자질을 높인다는 보도를 보았다. 승려 자질 향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과제 중의 하나였다.

스님은 인천의 사표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보리를 증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수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대로 교육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스님이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스님들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식 이하의 스님도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재가불자들이 스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 구족계를 받지 않으면 스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사미(니)가 스님 노릇을 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스님인양 법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승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톨릭과 원불교가 성직자와 신도간 명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교육을 통해 성직자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의 자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불교도 승가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와 불자들을 선도하는 스님들을 보다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유정선(수원시 장안동)

< 8면 「상식퍼즐」 정답>

구	전		주		명		경	제
정	법	안	장		왕	조	시	대
	륜		자	금	성		풍	
업	경	대		리		부	조	리
		명	예		자	재		
교	법	사		불		자	주	권
	신		명	명	식		변	
경	사	대	부		도	둑	장	가
도	리		전		락		치	부

'현대'만평 심 민 섭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2,500,000
- 육임래정비법 ·····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 900,000
- 육임형이상법 ·····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 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간(肝)이 염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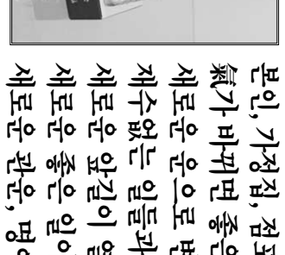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신비의 생氣 부적 명당육氣방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복덩어리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가막힌 복덩어리

051)865-9933

인도그림기행 34

공양과 교화 꽃피운 '실천'의 무대

그림·글 이호신

허공에 나투신 천불이여

(사위성 마을을 지나며)

붓다의 위대성은 사실 깨침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의 장(場)을 함께 일구었다는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당시 라즈기르(왕사성), 죽림정사에 머물고 있던 붓다에게 수닷타(Sudatta) 장자가 찾아와 쉬라바스티(Sravasti), 즉 사위성(舍衛城)으로 와 주실 것을 청하자 그의 뜻을 존중, 수락해준 까닭에. 그 수닷타로 인해 마침내 기원정사(祇園精舍)가 건립되었다는 사위성을 찾아가는 길은 신화와 전설 같은,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찾는 설렘으로 모두를 들뜨게 한다.

"우리 모두 스스로 신통력(神通力)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신통을 맞추면 원하는 대로 해가 뜨고 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붓다의 제자 중 가장 신통력이 영험했다는 목련존자(目連尊者)의 얘기를 들려주는 달공 조홍식 박사님. 팔순을 넘게 수행해 오신 박사님의 뜻은 마음먹기에 따라 천지간의 운행도 개개인의 내면세계로 달라지고 변화무쌍하다는 말씀.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시적(可視的)이 아닌 것에 비해 그 옛날 붓다께서 친히 신통과 기적을 보이셨다는 사위성 길목의 어느 언덕. 현재 오라자드(Oraghad)라고 부르는 언덕은 발굴되지 않은 스투파 터인데 이곳에 오르면 즐비한 망고나무숲 위로 기원정사(서)와 왕사성 마을(북)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그 망고동산 위로 천개의 붓다상이 나투었다는 하늘 스크린의 무대는 실로 순례객의 상상을 자극한다.

기록상 만부득, 이교도의 지나친 침해와 정법수호를 위해 자비심을 바탕에 둔 붓다의 신통은 결코 과시가 아니었음이 곳곳에서 살펴진다.

여인의 유혹에 빠진 제자 아난다를 구하기 위한 계기로 <능엄경>을 설해야 했고, 챤다마나 라는 여인의 위장 모함(임신)으로 붓다의 위상이 흔들릴뻔 했던 일. 데바닷타와 앙굴리마라의 도전을 항복시켜야 했던 일이 있었으니 황무지를 일구기 위한 노력은 실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사위성은 당시 북인도에서도 강력한 군주국가 코살라(Kosala)국의 수도로서 유물론적 사상과 자이나교가 성행하고 있어 불교의 토착화는 시련과 모험에 따른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었다. 이로써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이 설해지는 등 많은 경전이 출전되었던바 이곳 사위성과 기원정사는 마침내 교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게 된다.

'천불화현(千佛化現).'

오라자드 언덕에서 동산지기가 드린 망고를 먹고 그 씨를 땅에 심어 순식간에 피어오르게 하고, 붓다의 몸이 천상에 천불(千佛)로 나투어 기적을 보였다는 하늘은 오늘 그지없이 맑고 푸르다.

이 사건은 붓다의 생애 중 매우 중대한 이야기로 형상화 되었는데 초기 불교조각과 벽화로는 아잔타 석굴이 대표적이다. 그 천불의 전래는 한국의 가람으로 불어와 천불전(직지사 등)을 따로 모셨고, 최근 안성 도피안사 대웅전, 비구니회관 후불탱화도 천불로 장식했다. 모두가 다른 양식과 제작자의 솜씨에 따라 천불은 그야말로 천태만상. 그러자니 누군들 천불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있으랴. 따라서 붓을 든 나그네는 돌연 천불화현의 무대가 된 허공에서 구름을 불러 모아본다. 그리고 갖가지 형상으로 천불의 이미지를 붓질해 본다. 하긴 누가 붓다를 보았다 하는가. "나를 보려거든 진리를 보아라" 하였거늘.

결국 나의 만용은 제주 영실 뒷산의 오백나한봉, 영암 월출산의 부처바위를 떠올렸고, 실제 금강산의 만물상과 바다에 뜬 칠성암, 천불암을 그린 겸재(謙齋)정선(1676~1759)의 인물형태 이미지 구성에 의지하였다. 하긴 <화엄경(華嚴經)>의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서 사방팔방으로 거주하고 있는 보살을 열거하는 중 법기(法起) 보살이 머문다는 바다 속 금강산이 봉래산(蓬萊山)이라고 확신(최완수)했던 선인들의 생각 또한 오늘 따라 간절해진 까닭에.



천불화현 (60×91cm).

금강경·원각경 설한 사위성은 교화 중심지로 우뚝

천불화현 불교조각에 큰 영향…모습도 천태만상



보리수와 왕사성 터 (45×30.5cm).

이제 사위성 가는 길목, 마을로 들어서자 온통 지뢰밭(?)이다. 오늘은 마른 쇠똥이 아니라 방금 싸 놓은 쇠똥이 지천으로 널렸는데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거대한 쇠똥은 햇살에 반질반질 윤기마저 더하니 마치 건강한 생명 자원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길섶에서의 충격. 검은 개가 눈이 뒤집힌 채 이를 악다물고 죽은 채 버려져 있다. 또 어젯 쯤 화장을 치루었는가. 타다 남은 볏단위에 버려진 대나무 들것과 시들은 원색의 꽃들. 그리고 흙으로 빚은 물단지 하나가 휑하니 뒹굴고 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처럼, 그렸다가 지우는 그림처럼 가없는 목숨이여.

마을을 지난 길은 쑥대밭 같은 황량한 벌판으로 이어지니 곳곳에서 발굴흔적이 눈에 띈다. 그 옛날 비구니 사찰터로 추정되는 동남문터 아래는 지표보다 낮은데 동행한 토목공학 전문가는 "이곳 토양이 연약한 지반이라 높은 건축은 무리였을 것이고, 침강, 침하의 우려로 지질학상 표면보다 낮게 건축되었을 것" 이라는 설명인데 둘러보니 구덩이가 파인 집터가 즐비하다. 한편 완만한 둔덕과 지평을 이룬 벌판위로 우뚝솟은 나무들은 거의 보리수였는데 다가설 수록 거대한 위용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화첩을 펼쳤다.

결국 멀어진 일행을 부지런히 따라가자 모두들 어느 벽돌 건축물에 앉아 야외 강의를 듣고 있다. 내용인즉 기원정사를 건립한 수닷타장자의 원대한 불사를 기리는 사연이다.

붓다께 정사를 지어 헌공하려는 지극한 정성은 "만일 그 동산을 사려거든 금으로 그 동산을 모조리 덮어보라"는 주인의 말에 따지거나 매달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실천의지. 이에 감동한 주인이 마침내 조건없이 희사한 아름다운 사연. 정녕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려니.

그런데 지금 앉은 건축물이 바로 발굴에 의해 수닷타의 집터로 알려진 곳이다. 또 이곳에서 건너편 언덕 아래에 보이는 건축물은 한때 악마의 사자였던 앙굴리마라의 스투파라 한다. 그는 꾐에 빠져 100개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고자 끝내는 어머니에게 마저 덤볐으나 갑자기 붓다가 출현, 설법하므로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는 사연이 바람결에 들려온다.

"벗이여, 죽이려는 사람 앞에 미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일으키지 않을뿐더러, 그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네가 바로 부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